

# 아주대학교 사람들

아주인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아주인 여러분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올해 아주대학교 사람들이란 소식지가 아주대 40주년을 돌아보는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로교수들에게 들어본 아주의 유산과 가치, 외부전문가들이 들려준 아주의 이미지에 이어 이번 호에는 아주대 동문들의 좌담이 있었습니다. 좌담에 앞서 총장실을 방문한 졸업생과 재학중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서로가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그들의 의젓함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사실 지방을 다니거나 행사에 참석하면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아주대 동문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학창시절의 추억, 학교 발전에 대한 생각, 또 각자의 참여 의지 등을 들으면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얼마 전에는 언론사 좌담을 위해 국내 대기업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동문을 만났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좌담이 끝난 후 그 동문이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는데, 자기자신부터 학교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많은 동문이 자신이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장학금을 기부하고, 후배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무 조건없이 학교발전을 기원하는 발전기금을 쾌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런 말들, 이런 모습에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느껴집니다.

우리 아주인을 연결하는 고리는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아주인에게 흐르고 있는 아주정신은 무엇일까도 생각해봅니다. 아주대학교가 동문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많은 말과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확실한 것은 입학정원 240명으로 시작한 아주대학교가 40년만에 모두가 인정하는 우수한 대학으로 성장해 사회에서 신뢰받는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인들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주인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한다는 말로 이번 편지를 갈음합니다.



총장 안재환

안재환

## 아주대학교 사람들

### Special Theme

좌담 column	'아주'라는 이름의 자부심 김혜숙 교수	05 12
-----------	--------------------------	----------

### Story of Ajou

Research	감동근 교수	16
Issue1	중앙일보 대학생 만족도 조사	18
Issue2	유지취업률 /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 평가	20
Zoom In	도구박물관 / 역사전시실	23
Focus	연구중심병원 선정	26
Passion	아주대 창업캠프 1, 2회 수상자	31
Prof. column	전유창 교수	34
Story	김태영 NCW학과 초빙교수	36
Alumni Story	최종욱 신임 총동문회장	38
Thank Donor	김대현 동문(벤틀코리아 대표)	40
Photo Sketch	2013 대동제	44
Admission Column	한호 입학처장	54

### Ajou Univ. News

People	14
Event	28
Award&Selection	30
그 외 소식	42
Medical Center	46
Donation News	48



## '아주'라는 이름의 자부심

29년 전 언론사 입사를 준비할 때의 일화다. 모 신문에 최종면접을 보러 갔더니 회장이라는 분이 “자네는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왜 아주대를 갔나?”라고 묻더라. 그 때 잘 받아 넘겼으면 좋았을걸 그 자리에서 들이 받았다. “회장님 아주대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순간 옆에 있던 인사담당자들의 얼굴이 싸늘해졌지만 회장은 태연하게 받아 넘기며 아주대의 좋은 점을 말해 보라고 했다. 나는 차분하게 내가 받은 국제화 교육과 엄격한 학점관리 등 우리 학교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나왔다. 그래도 가슴이 답답했다. 그 다음날로 학교에서 홍보자료를 구해서 다시 신문을 찾아갔다. 회장을 뵈러 왔더니, 회장은 부재중이라고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나는 “여기 아주대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사회지도층으로서 학교 이름으로 사람을 가볍게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회장님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남긴채 돌아왔다. 이때 받은 충격이 이후 내가 절치부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에 원동력이 됐다.

(박수택 기자-SBS 논설위원, 경영 78)

# ‘아주’라는 이름의 자부심



2013년 올해 아주대학교는 개교 40주년을 맞이했다. 1973년 279명의 신입생으로 출범한 아주공업초급대학이 40년 만에 재학생 규모 1만4000여명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아주인들이 남긴 발자취는 무엇일까. 개교 40주년 특집을 통해 원로교수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어 이번 호에서는 아주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만나봤다. 지난 6월12일 진행된 좌담에는 박수택 SBS 논설위원(경영 78), 신두철 에코코리아 사장(불문 79), 이교범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전자 91)와 허무관 총학생회장(경영 08), 김수진 학생(미디어 10)이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5인의 아주 선배들은 모교가 동문들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그들이 공유하는 ‘아주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리\_ 이슬 (홍보실)



대학시절을 떠올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이나 추억은 무엇인가?

**박수택** 1978년 초 입학원서를 쓰기 위해 학교에 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다. 눈 덮인 원천로를 걸어 올라오니 오른쪽에 논밭이 펼쳐져 있고 T자 모양의 원천관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적막하면서도 우뚝 선 그 풍광에 압도당했다. 축제 때 오 헨리(O.Henry)의 단편 ‘20년 후’를 직접 각색해 영어연극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탄 경험, 뉴스워크지를 강독하는 클럽을 만들어 진행했던 경험 등이 기억에 남는다.

**신두철** 아주대에는 70년대 말~80년대 초의 다른 대학들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국제적인 문화, 분위기가 존재했다. 아주대가 한불문화협정(1965)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고 프랑스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에 당시 아주대에는 프랑스 교수들이 꽤 많이 파견 나와 있었다. 프랑스 교수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예쁜 관사도 캠퍼스 내에 만들어져 있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정에서 프랑스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는데, 비디오와 같은 영상 미디어를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시대라서 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이교범** 1991년에 아주대 제어계측공학과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했다. 험한 아주대 캠퍼스 주변을 바라보노라면 더욱 흥이 나지 않았다. 당시에는 캠퍼스에 담도 없었고 아주대병원 개원을 위해 부지조성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자리에는 판자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은 곳은 락밴드 동아리인 ‘스파이더스’였다. 90년대 초반 대학의 축제는 학생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경향이 짙었기에 우리가 공연하는 성호관 소극장에는 관객이 가득 차다 못해 밖에 줄을 서서 볼 정도였다. 당시 나는 드러머로 활동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난다. 교수로 모교에 부임한 뒤에도 스파이더스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허무관** 초등학교 때 ‘생각쟁이’라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고 그 책에서 아주대학교를 처음 접했다. 초등학생으로서 접하는 첫 대학교였는데 책에서 소개한 ‘역사는 짧지만 저력 있는 학교’라는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다. 아주대에 입학한 뒤 봄마다 아름답게 만개하는 벚꽃, 가을이면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낙엽 등 아주대의 풍경이 참 좋았다. 경영학과에 들어왔는데, 실사구시라는 학풍도 봤고 수업 듣고 공부하는 데도 재미를 느꼈다. 소학회도 8개나 하고 의욕적으로 대학생활을 했다. 학생회를 하게 된 것도 학교에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할 만큼 좋은 기억이 많아서다.

**김수진** 대학에 입학한 뒤,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올타리’ 같은 게 없어졌다는 느낌에 방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보사 기자로 바빠 활동하면서 점차 안정되는걸 느꼈다. 학보사 기사를 시작하고 학교 면면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정을 붙이게 된 것 같다. 기사 마감을 위해 뜬 눈으로 학보사에서 밤을 지새운적이 많다. 밤을 꼬박 지새울 만큼 정신없는 와중에도 창밖으로 보이는 원천관 위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캠퍼스가 마치 내 집이 된 듯 편안함을 느꼈다.



**박수택 (경영 78)**  
1984년 MBC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고 1991년 SBS로 자리를 옮겨 나이트라인 앵커, 주말 뉴스 앵커 등을 거쳤다. 환경전문기자로 ‘올해의 방송인상’을 비롯해 다수의 상을 수상했고 현재 논설위원으로 있다.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감한 '아주대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무엇인가?

**박수택** 78학번인 나는 아주대학교가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때에 학교생활을 했다. 모든 것이 갖춰진 대학이 아니었기에 우리 학생들 한명 한명도 같이 학교의 뿌리와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격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일찍이 적극성과 책임감을 몸에 익히게 됐다. '우리 대학,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도 한명의 책임자'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4학기 동안 프랑수어를 필수로 공부하도록 하는 등 다른 대학 친구들에 비해 유럽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됐다.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자각이 빨리 생겼다.

**신두철**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당시에도 아주대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지방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지리적 모호성이 있는데다 학생들 스스로도 한발자국만 더 디디면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뛰어들게 된 것 같다. '명문대학'이라는 간판도 없고 기댈 선배도 많지 않기에 자기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전 직장에 근무할 때 불문학 전공자로서 연매출이 500억원에 달하는 회사의 재무책임자(CFO)가 됐다. 사람들은 불문과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냐고 궁금해 했는데, 나는 '그걸 안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임했다'라고 답했다. 불문과 동기 중에는 지금 음대 교수로 가 있는 친구도 있다. 나는 아주대학교에 다니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적극성과 개척 정신을 배웠다.

**이교범** 선배들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아주대학교 출신으로서 교수로 임용됐을 때 '절박함'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교수사회를 보면 아직도 아주대 출신은 마이너 중 마이너로 연구면 연구, 교육이면 교육 다른 교수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러한 열정의 바탕에는 물론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깔려있다. 나는 아주대에 입학한 뒤 전공이 적성이 맞지 않아 방향하다가 2학년 때부터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 2학년이 지나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어도 학점이 오를 기미가 없었다. 동 대학원에도 간신히 입학했다. 그만큼 동료들의 학구열이 뜨거웠는데 강의 때 앞자리에 앉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가방으로 미리 자리를 맡아 놨다고 다툼까지 생길 정도였다. 아주대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입학 때 보다 졸업 때 훨씬 훌륭한 실력을 갖게 된다는 자신감, 그리고 유명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과도 충분히 겨룰 만 하다는 패기가 있었다.

**신두철 (불문 79)**  
캘러웨이골프 코리아 이사,  
클리브랜드 골프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ECCO 코리아와  
JD Plus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재학생들의 경우 성적에 맞추다보니 아주대에 진학하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경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동문들의 생각은 어떤가?

**박수택** 톰 행크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생쥐 두 마리가 우유에 빠졌는데 한 마리는 절망에 빠져 있다가 익사하고 말았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던 중 어느덧 우유가 치즈가 되어 빠져 나올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들어온 대학에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원망할 필요가 없으며 우유 속의 여러분이 아주대를 '맛있는 치즈나 버터'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교범** 나와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 신입생 중 상당수가 '아주대를 더 다녀야 할까요 말까요?'라는 고민을 안고 온다. 그럴 때 마다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과거의 내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한다. 내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 서울 유명 대학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도 합격했지만 아주대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이 모교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후배들도 자신감을 얻는다. 아주대 재학생들의 능력은 충분히 훌륭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롤 모델(Role Model)이고 비전(Vision)이다. '우리 경영학과 선배 중에 SBS 기자가 있네', '패션 그룹의 CEO가 있구나' 하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허무관**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를 보는 시각은 매우 다르다. 김연아가 한국 같은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에서 배출된 스타이기에 그 성공이 더욱 의미가 깊듯이, 오늘 선배들의 성공담을 들으니 '아주인의 성공은 노력과 에너지로 만든 신화'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선배들이 계셔서 아주인으로서 자부심이 커진다. 하지만 앞서 김수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후배들이 선배들의 성공사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주었으면 좋겠다.

**김수진** 곳곳하게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일구신 선배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나를 비롯한 재학생들이 그러한 성공사례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선배들, 성공한 선배들을 자주 접하고 경험담을 듣는 만남의 장이 많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선배들을 통해 재학생들이 어디서든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교범 (전자 91)**  
덴마크 올보대학 교수, 전북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2007년 9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아주대학교 동문들의 결속력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수택\_ 이교범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다들 각자의 삶에 바쁘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나의 경우 언론사에 몸담은지 어느새 29년이 됐는데 그동안 동문 선배들과 모교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 동문들이 그동안 모교에서 받은 것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려는 움직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 나부터도 재학중에 받았던 4번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의 짐을 쪽 가지고 있었고 1-1-1 캠페인 등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실천을 해가려고 한다. 동문회 선배들이 생활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만든 '소시에떼 도네르 장학금'도 그런 마음의 표현이다.

신두철\_ '아주 CEO 포럼'이라는 동문 출신 경영자들의 모임이 있다. 처음에 30~40명으로 시작한 이 모임의 회원이 지금은 1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보고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체감한다. 일단은 아주인 개개인이 우뚝 서야 결국 동문들의 결속력도 단단해질 수 있다. 점이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선이 모여 입체가 될 것이다. 지금 아주대 동문들간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이교범\_ 아주대 안에 모교 출신 교수가 딱 17명 있다. 그런데 한 학기에 한번 서로 만나기도 어렵다. 다른 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는 동문들과도 마찬가지다. 아직 서로 교류를 하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하기에는 각자의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바쁜 형편이다. 학교가 1973년 개교했고, 1977년 1회 졸업생으로 97명을 배출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축적된 졸업생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77~79학번 선배들이 이제 막 임원이 되고 사회 지도층으로 자리 잡는 연배이기 때문이다.

허무관 (경영 08)

경영학과 08학번으로 지난해 12월 제32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김수진 (미디어 10)

미디어학과 10학번으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아주대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다.



각자가 희망하는 아주대학교라는 브랜드는 어떤 모습인가?

박수택\_ 학교다닐 때 경영학과에 엉뚱한 발상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부러울 때가 많다. 우리 학생들도 남들이 다 가는 길로만 가지 말고 각자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인생 길다. 어렵사리 대기업에 들어가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자본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돈은 오래 못 간다. 인간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가라. 남들이 안하는 것을 해라. 아주대는 이런 가치관과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신두철\_ 불문과 79학번 동기인 아주대 박만규 교수(불문)가 아프리카 트랙을 개설해 불문과 출신 학생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아주대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남들처럼 대기업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세우고 스펙경쟁만 벌이는 후배들을 보면 안타깝다. 모두가 대기업만 바라볼 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길이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투철한 개척정신으로 인생을 일궈온 아주대 선배들에게는 그런 DNA가 있었다. 선배들이 후배들의 손을 잡고 이런 아주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교범\_ 아주대의 상징색은 파란색이다. 파란색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푸릇푸릇한 젊음의 느낌을 준다. 개교 40주년이 된 아주대 역시 비슷한 느낌이다.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듯 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잠재력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긴장감, 절박함, 소외감 등 초창기 아주대를 움매어 온 것들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을 지향하는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인정받는 아주대가 되었으면 한다.

허무관\_ 아주대 학부 재학생의 수가 1만명 남짓이다. 1만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능력,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성실하고도 혁신적인 사회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배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두가 대기업에 가겠다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나설게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살려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곧 아주대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수진\_ 나를 포함해서 아주인 모두가 스스로 아주대학교 출신이라는데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다. 큰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연륜이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대학교 졸업생들은 '성실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한다.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이라는 평가는 적은 것 같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아주대 브랜드는 보다 에너지 넘치는 무엇이었으면 좋겠다.

## ‘아주인’은 누구인가

심리학과\_ 김혜숙 교수



강사시절까지 합해서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난 지 벌써 25년이 넘었다. 교수란 직업의 특성상 강의하고 논문쓰고 학회 참석하고 하는 생활을 매학기 반복하다 보니 그 세월이 어느덧 훌쩍 지나 갔구나 싶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그동안 내가 만난 학생들을 돌이켜 보았는데, 그 중에는 교수 혹은 유명 텔런트가 되거나 기업체에서 간부가 되는 등 소위 잘나가는 졸업생들도 있지만 이민을 가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더 이상 만나거나 소식을 듣기 힘든 졸업생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주대 졸업생들은 자신이 선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 맨 처음 내가 강의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많은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듯 아주대 학생들을 처음 가르쳐 보면 참 성실하고 얌전하며 실력도 좋다는 인상을 받는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강의를 성실하게 듣는 편이며 과제나 팀 작업도 열심히 수행하고 교수의 질문에 답변도 잘 하는 편이다. 내가 아주대 학생들에게 받은 이러한 처음의 인상은 아직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주대 학생들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책임감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특성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의 5요인 이론(인간의 성격의 중요한 차원을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친화성 및 개방성으로 보는 이론)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 성실성이 일반적 적응이나 회사에서의 성공적 업무수행을 예측해 준다는 일관된 결과로 미루어 보건대 매우 큰 강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안정되게 업무 수행을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직무에 대한 헌신도 높고 또한 조직 규범을 준수하는 경향도 높아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주대 졸업생들을 만나 보면 자신이 일하는 조직에서 상사의 인정을 받아 안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주대 학생들의 또 다른 강점은 ‘건전한 상식인’이라는 데 있다. 이는 해마다 학생상담센터에서 조사하는 ‘아주대 재학생 실태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012년 조사를 보면 아주대 학생들이 인생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는 건강, 가정, 돈, 친구의 순이었다. 물론 남녀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여학생은 가정, 건강, 돈, 사랑의 순으로 중요도를 지각함. 남학생은 건강, 가정, 돈, 친구의 순) 이전에 비해 남녀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어 남학생과 여학생 공히 건강과 가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고 있다(참고로 2004년 조사에서는 여학생은 자아실현, 건강, 가정의 순이었으며 남학생은 돈, 자아실현, 건강의 순으로 중요성을 지각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다). 그러나 권력, 명예, 사회정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했다. 아주대 학생들은 또한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실력과 노력을 꼽았고 학력이나 가정배경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과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고

우리 학생들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기존의 질서를 수용하며 어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한편 지나치게 얌전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해 지레 타협해버리는 아쉬운 측면도 있다.

특히 가족 관계가 매우 좋다고 지각했다. 이에 따라 아주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도 3.7점으로(5점 만점) 긍정적인 편이었다. 2011년 조사도 비슷하였다. 이렇게 볼 때 아주대 학생들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며 또한 건강하고 실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주대 학생들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성실하며 대체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청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한편 젊은 사람들에게 대해 내가 가지는 기대로 비추어 볼 때 조금 아쉽다고나 할까 혹은 이 점만 채워지면 정말 멋진 젊은이들이 될 수 있을텐데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는 젊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인 도전 의식과 패기, 혹은 그것이 연애 이든 학문이건 혹은 봉사활동이건 간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열정이다. 기존의 질서나 세상의 고정관념들에 대해 의문시하고 도전하며 보다 이상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젊음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중의 하나가 아닌가. 대학 시절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다양한 세상을 체험하며 또한 결단하여 행동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닫게 하고 또한 추후 자신의 삶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 삶으로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학생들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기존의 질서를 수용하며 어른들과의 관계를 좋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 기존의 틀 안에서만 바라보고 지나치게 얌전하며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자칫 깨닫지 못하여 지레 타협해 버리는 아쉬운 측면도 있다.

아주대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의 놀라운 창의성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는 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팀 작업으로 발표한 영상을 접했을 때(1998년으로 기억한다). 이 학생들은 ‘뒤집힌 성희롱’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시나리오도 직접 쓰고 연기도 같이 하였으며 촬영도 직접 한 20분짜리 영상이었다. 내용은 그야말로 캠퍼스에서 무심히 지나쳐 가기 쉬운 성희롱의 일상을 뒤집어서 그린 것이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 캠퍼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면 여학생들이 쫓아가 담배를 뺏으면서 ‘어디 감히 남자가 버섯이 담배를 피우고 다녀?’라고 하거나, 학과 모임 뒤풀이에서 여자 선배가 남자 후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술을 따르라고 하는 등 캠퍼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의 모습들을 뒤집어 보여준 것이었다. 이 영상을 복사해 달라고 하여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가 창의적이면서도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의식을 보여 줬고 연기도 꽤 잘 했으며, 무엇보다 한 수업시간의 과제로 만들기에 무척 많은 시간을 들였을 학생들의 열정에 감복했다. 또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작업을 해내는 학생들의 젊음이 부러웠다. 물론 학생들이 보다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세상을 체험하며 도전의식과 열정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침 아주대는 가장 먼저 다양한 외국 대학과의 교류와 교환학생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대학 중의 하나이고, 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고 있어 학내 환경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학생들이 부디 이러한 학내외 여러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고 도전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들과 삶의 모습들을 체험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개방적 삶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는 성실성과 실천력을 갖춘 멋진 젊은이들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 PEOPLE AJOU UNIV. NEWS

## 인물동정



### 대우학원 제4대 추호석 이사장 취임

추호석 신임 이사장이 학교법인 대우학원 제4대 이사장으로 4월19일 취임했다. 대우학원은 3월 이사회를 열어 추호석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추 이사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그룹에 입사해 (주)대우 전무이사, 대우중공업 종합기계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2004년부터 (주)파라다이스로 자리를 옮겨 총괄 사장과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로 이사장 직무대행을 4차례 수행한 바 있으며 2003년부터 대우학원 이사로 재직해 왔다.

추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우학원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사장으로서 우리 대우학원이 경쟁력 있는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 산하에는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료원, 아주자동차대학이 속해있다.

### 이건모 교수, 세계 첫 '지속가능공학기술 편람' 출간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이견모 교수가 지속가능기술 전문서적인 '지속가능공학기술 편람(Handbook of Sustainable Engineering)'을 세계 최대 연구서적 출판사인 스프링거사를 통해 펴냈다. 이 책은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기술 분야의 주요 이론과 기술들을 총망라한 편람형식의 전문서적이다. '지속가능공학기술 편람'은 지속가능 생산, 소비, 신소재, 수자원 관리, 미래 에너지원, 교육 및 정책 등 7개의 주제, 총 6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계 전문가 60여명이 각 챕터의 원고를 작성했다.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직접 원고 작성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원고를 의뢰할 전문가를 직접 선정하고 작성된 원고를 검토 및 편집하는 등 에디터의 역할을 수행, 3년 만에 책을 펴냈다.

이견모 교수는 “이 책의 원고를 작성해주신 분들은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라며 “지속가능기술 분야에서는 유럽과 일본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인으로서 이 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파우차우리 박사(UN 정무간 기후변화위원회 의장)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지속가능공학 기술의 미래를 밝혀줄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종수 교수, 대한암학회 학술상 수상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 및 의과대학 SRC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 소속의 이종수 교수가 제2회 대한암학회 광동암 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암학회는 회원들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인용지수(IF, Impact Factor)가 높은 저널에 암학회지를 인용해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선정해 학술상을 주고 있다.

이 교수는 '종양억제 유전자(BRCA1)의 정상상태 복귀과정에서 크로마틴 단백질 HP1gamma가 수행하는 기능 (Suppression and recovery of BRCA1 mediated transcription by HP1gamma via modulation of promoter occupancy)'이라는 논문을 지난해 핵산 연구지(Nucleic Acids Research)에 실은 바 있다.

이 논문은 인체세포가 유전체 손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완료한 이후 정상상태로 복원하는 과정의 분자기전을 밝힌 것이다. 이종수 교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체 손상 스트레스 반응 전과정에서의 역할을 형질전환 생쥐 모델을 이용해 검증, 인체의 질환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연계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김두현 교수 연구팀,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 발표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두현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의대 분자세포학 김경규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이 세계적 학술지인 국제 구조학회지(Acta Crystallographica D) 6월 호에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의 제목은 '미생물 집합체를 통해 본 지질분해효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분석(Structural and Functional Analyses of a Bacterial Homolog of Hormone Sensitive Lipase from a Metagenomic Library)'이다. 논문은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 지질분해효소에 대한 것으로, 공동 연구팀은 효소의 작용이 기존에 알려진 내용들과는 상당 부분 다르며 특히 효소가 단독으로보다는 집합체 형태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 냈다.

김두현 교수는 “당뇨와 비만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인체 효소의 분석과 취급인데 인체 효소를 직접 분석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공동연구팀은 미생물에서 얻은 새로운 형태의 효소를 통해 효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은 뒤 이를 인체 효소에 적용하는 접근방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총괄 연구책임자 겸 교신저자로 참여한 김두현 교수 외에도 아주대 분자과학 기술학과 석사과정 류범한 학생이 공동1저자로, 주한솔·장은진 학생이 공동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 e-비즈 재학생, SSCI급 학술지에 논문 실어

아주대학교 학부생들이 참여한 논문이 SSCI급 학술지에 실린다. e-비즈니스학과 11학번 채승훈, 조경민 학생이 쓴 '한국 시장에서 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Drivers and inhibitors of SaaS adoption in Korea)'이라는 논문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제33호(2013년 6월판)에 실렸다. 채승훈 학생이 제2저자로, 조경민 학생이 제3저자로 참여했고 이상근 전 아주대 교수(현 서강대 교수)가 지도교수로 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논문의 특징은 최근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 시장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논문은 지난 2006~2008년에 한국 SaaS 시장이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가 사용자의 인식부재에 따른 것이었다면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확대의 걸림돌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앞으로는 도입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 마침내 세계의 신호를 받은 남자

전자공학과\_ 감동근 교수

15년 전, 전자공학에 입문한 이후  
꼭 감동근 교수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왔다.  
그리고 그가 보내는 신호가 온전  
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  
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드디  
어 올해, 세계가 그에게 응답했  
다.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국제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의 '젊은 우수 공학자상'을 수상  
한 것이다.

글\_ 이경아 (편집실)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속한 국제전기전자  
기술자협회 (IEEE,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  
ics Engineers)의 전자부품·패키징·제조기술 소사이어티  
(CPMT Society, Components, Packaging and Manufactur-  
ing Technology Society)에서는 매년 만 35세 이하의 우수한  
공학자 1명에게 '젊은 우수 공학자상(CPMT Outstanding  
Young Engineer Award)'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인으로는  
지난 2007년 조지아공대 박사후 연구과정에 재직중이던 임명진  
박사가 처음으로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30일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감동근 교수가 두 번째 '2013 젊은 우수  
공학자상' 한국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의 후보자로 선정돼 수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소 험난  
한데, 우선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1명의 지명자와 그를 제외한  
3명의 추천인이 더 필요하다. 또한 추천서에는 후보자의 업적이  
또래의 우수한 연구자들의 그것에 비해 어떻게 확연히 구분  
되는지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어느 한 가지 대표  
업적만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연구  
업적과 그것이 학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감 교수는 두이싼 리우(Duixian Liu)를 비롯한 IBM  
왓슨 연구소 연구원들의 지명 및 추천을 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  
IBM 왓슨 연구소는 감 교수가 아주대에 부임하기 전 몸담았던  
곳으로 IBM 연구 부문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먼저 저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준 전  
직장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무척 기쁨과 동시에, 정말 받기  
어려운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깁  
니다. 역대 수상자들을 보면 수상 이후 더 훌륭한 연구 업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 레벨  
신호무결성 연구와 밀리미터파대역 안테나 내장 패키지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공학과에서 박사학위  
를 받은 뒤 IBM 왓슨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2년 전 아주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감 교수. 그는 반도체 패키징 및 전자파 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국제 저널에 논문 19  
편을 실고, 그 외에도 40여 편의 국제 학회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미국 특허와 국내 특허를 각 3건씩  
등록했으며, 지난 2008년 디자인론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  
2011년 IBM 왓슨 연구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젊은 우수 공학자'다운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줬다.



그의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시스템 레벨 신호무결성 연구'는 전기  
신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수준의 연구이다. 송신부에서  
출발한 신호가 유/무선/광 채널을 지나 수신부에 도착할 때  
크기나 모양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가 이전에는  
시스템의 각 요소별로 이뤄졌지만, 감 교수는 나무보다 숲을  
봐야한다는 생각으로 시스템 레벨 연구를 진행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과제인 '밀리미터파대역  
안테나 내장 패키지 개발'은 60, 77, 94GHz 대역에서 다수의  
위상배열 안테나를 내장한 패키지를 개발해 다양한 기술에  
접목하는 것이다.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은 만큼 넓은 대역폭을 이용할 수  
있어 특별한 장애물 없는 직선 구간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상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면 장애물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60GHz 대역  
패키지 개발을 통해 PC, HDTV, 스마트폰 등 IT 기기 사이에서  
기존의 HDMI 케이블 연결 없이 무선으로 고화질(1080p) 영상을  
압축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른 Wi-Fi 표준  
(802.11n)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77GHz  
대역 패키지는 자동차의 충돌방지 레이더시스템에, 94GHz 대역  
패키지는 보안 영상 시스템에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대학시절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방황하며 젊음을 탕진했다는  
감 교수. 지금도 젊지만, 더욱 에너지 넘쳤던 젊은 시절의 소중함  
을 알기에 아주대 학생들에게 특히 해주고픈 말이 많다. '삶의  
유한함'을 한 번쯤 생각해보라는 것. 한 번 사는 인생, 그 중에서  
도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다. 제3, 제4의 '젊은 우수 공학자'가 아주대에서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오늘도 연구와 교육,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며 달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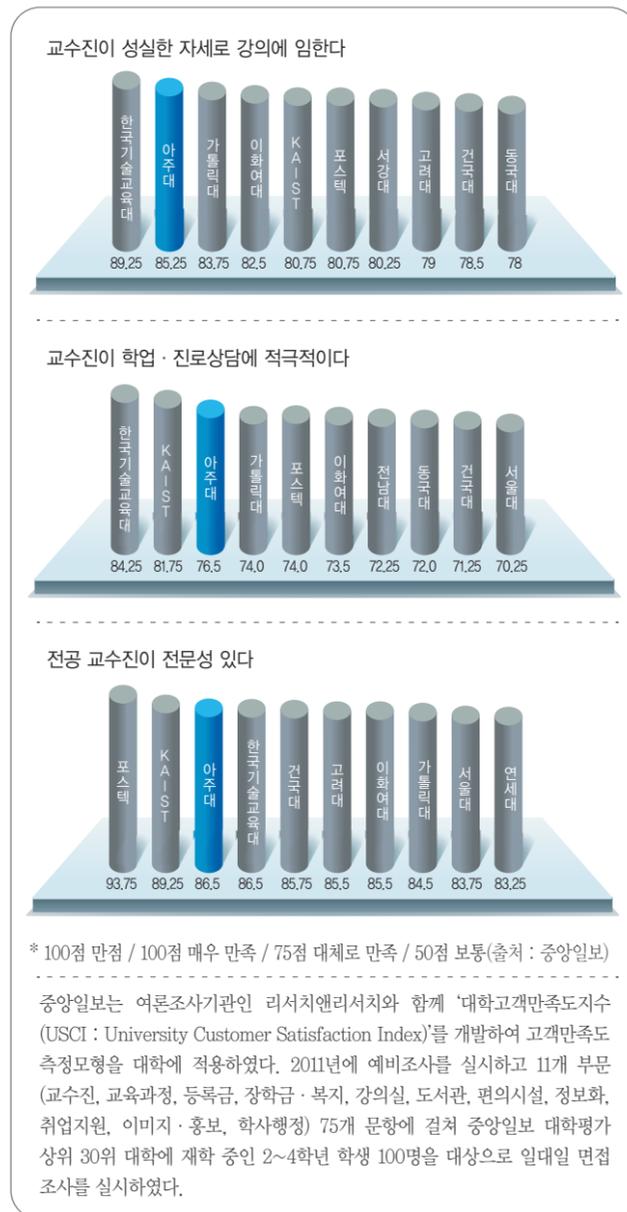
# 중앙일보 대학생 만족도조사 아주대 '잘 가르치는 대학' 입증

글\_ 이지윤 (홍보실)

아주대학교가 지난 4월 중앙일보와 여론조사기관 R&R이 실시한 2013 대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교수진 성실 부문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결과를 냈다. 1위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특성화 대학임을 감안한다면 아주대가 일반 4년제 대학 중에서 사실상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주대가 좋은 성적을 낸 교수진 만족도에 대한 대표 문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수진이 성실한 자세로 강의에 임한다(2위) ▲교수진이 학업·진로상담에 적극적이다(3위) ▲전공 교수진이 전문성 있다(3위)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아주대학교 교수진에 대해 느끼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조사대상 30개 대학 중 최상위권이었다. 아주대는 총 11개의 조사부문 중 교수진, 교육과정, 취업지원과 같이 교육의 핵심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잘 가르치는 대학'임을 또 한번 입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 중 하나는 강의평가 결과 공개인데, 아주대학교에서는 2010학년도부터 교내 인트라넷인 AIMS2를 통해 교원별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예비 수강신청기간부터 수강정정기간까지 최근 3개 학기의 강의평가를 열람할 수 있다. 수업에 관해 조언을 구할 선택이 적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 선택에 큰 참고가 되기도 한다. 강의평가에서 학생들로부터 일정 점수 미만을 받은 교수는 승급 및 승진 탈락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수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수업평가에 대한 학생의 피드백이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선순환 역할을 하고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수업품질 향상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역할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역량 강화와 교수법 개발 지원을 위해 특강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희망하는 교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신입교원은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강의 컨설팅으로, 프로그램 참가교수의 수업을 촬영하는 한편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가 집중 분석한 후 지면 또는 면대면으로 코칭을 받도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교수 본인도 몰랐던 강의 습관을 고치는 것은 물론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도 얻게된다.

사실 제도와 기관의 운영만으로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교수의 강의 자세와 같은 항목은 강의평가 점수나 프로그램 참가 횟수처럼 정량화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 개개인에 따라 얼마든지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학생들이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답한 것은 사제간의 신뢰와 애정이 그만큼 두터워서 일 터. 이는 열과 성을 다해 학생지도에 임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소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결과는 '역시'다. 융합학문을 선도한다는 슬로건에 걸맞게 '복수·부전공 제도가 잘 되어 있다(2위)'는 평가가 나왔다. 아주대학교 학생들은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교수의 성실한 지도편달 아래 다양한 전공분야의 수업을 아우르며 다재다능한 인재로 양성된다. 아주인의 기회와 가능성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아 2+2, 3+1 복수학위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 우수 대학의 학위도 복수로 취득할 수 있다. 본교에서 2년 또는 3년 동안 수학한 뒤 졸업까지 남은 기간은 미국 스토니브룩대학, 일리노이공과대학 등에서 공부를 하며 자연스럽게 국제무대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학생들은 취업과 관련해서도 든든한 지원을 받는다. 사회진출센터에서는 주말에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각 단과대학 별로 취업담당관을 지정하여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신입생들은 '대학생활과 진로'를 필수로 수강하게 되어 있고 졸업생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주대가 이번 조사의 '학생 취업을 위한 지원이 활발하다(2위)' 항목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전교적인 노력을 학생들이 몸소 체감하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 ‘취업의 질’이 다르다 아주대학교 유지취업률 1위

글\_ 이슬 (홍보실)

아주대학교가 졸업생 2000~3000명 규모의 학교들이 속해 있는 ‘나’그룹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유지취업률을 기록했다. 유지 취업률은 교육부가 대학들이 졸업생들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시킨 뒤 취업률에 반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지표로 유지취업률이 높을수록 ‘취업의 질’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 유지취업률 1위...‘취업의 질’ 우수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아주대학교 2012년 졸업생의 유지취업률은 96.1%(9월 조사)로 조사됐다. 이는 아주대와 규모가 비슷한 ‘나’ 그룹의 24개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나’그룹에는 아주대와 홍익대, 숭실대, 동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등이 속해 있다. 지난해 교육부 발표 때 ‘나’그룹에 속했던 27개 대학 중 한국과학기술대, 한밭대, 남서울대학은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변경(미공시)된 경우에 해당해 제외했다.

유지취업률은 매년 6월 직장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대졸자의 취업률을 조사한 뒤 9월과 12월에도 건강보험이 계속 유지되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아주대의 경우 지난해 9월에 실시된 1차 조사에서 유지취업률 96.1%를, 12월에 실시된 2차 조사에서 유지취업률 93.9%를 기록했다. 두 번 모두 ‘나’그룹 대학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이다.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성공적 구직활동 도와

아주대가 이처럼 우수한 취업률을 기록한데는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한몫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이같은 평가는 동아일보가 올 5월 실시한 ‘청년드림 대학평가’ 결과에도 나타난다. 동아일보는 취업지원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10개 대학을 ‘청년드림 대학평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했고 아주대도 여기에 포함됐다. 최우수 대학에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이 아주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실제 아주대에는 단계별·시기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주로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직접적으로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 아주대 사회진출센터가 마련한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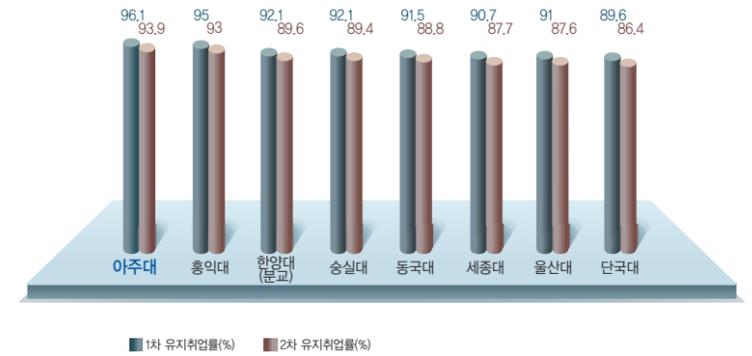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개발** -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1학년짜리 교양필수 과목이다. 신입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교과목이다. 본인의 관심직종과 본인의 적성에 대한 분석이 담긴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하고 취업을 위한 기초 어학능력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토익강좌도 병행한다. 그밖에도 취업의 첫 관문인 기업별 직무적성검사를 대비한 ‘자기개발과 진로선택1/2’, 중견기업 CEO를 직접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이해’ 등의 정규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다.

**△방학 집중 프로그램** - 방학을 이용해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 하는 ‘잡 내비게이션(Job Navigation)’을 비롯해 취업캠프, 취업 스타트업, 직무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잡 내비게이션은 3주 동안 교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하며 입사지원서 특강, 1분 스피치 기법 강의, 모의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취업 스타트업은 학생 개인별 강점을 파악해 그에 기초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토록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직무 아카데미는 금융, 영업 및 마케팅, 무역, 유통, 소프트웨어 직군 등 학생들이 관심 있는 특정 직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고 이를 입사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특별 프로그램** - 그밖에도 편입생들의 커리어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와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길러주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스쿨’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취업을 위한 학점 및 영어 성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B프로젝트’도 아주대 사회진출센터가 새로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또 사회진출센터에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적성이나 진로 상담, 입사지원서 작성 등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관도 상주하고 있다. 취업지원관은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 채용된다.

박철균 아주대 사회진출센터 센터장은 “대학에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체계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학풍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입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나 그룹 대학 2012년 취업률 분석〉



\* 1차 조사는 9월, 2차 조사는 12월에 진행 / 자료제공-사회진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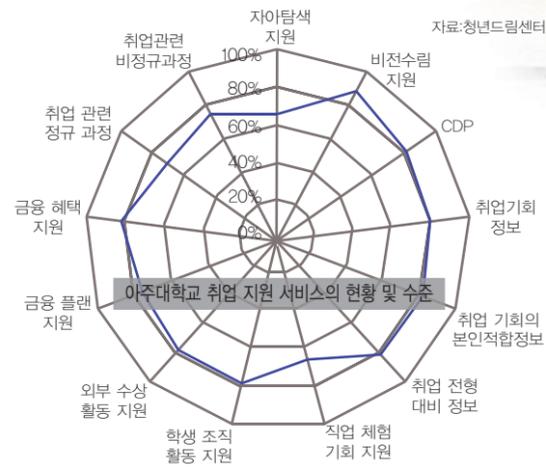
### 진로 · 취업 고민,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회진출센터(아주대학교 신학생회관 1층)  
홈페이지 <http://job.ajou.ac.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ajoujob](http://www.facebook.com/ajoujob)  
트위터 @ajoujob / 전화번호 031-219-2041~5

## 동아일보 청년드림 대학평가

# 아주대 취업지원 역량 '최우수'

글\_ 이슬 (홍보실)



아주대학교가 동아일보-채널A-딜로이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청년드림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동아일보는 취업지원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10개 대학을 청년드림 대학으로 명명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5월21일자 지면을 통해 대학의 취업·창업 프로그램과 학생 만족도, 취업률 등을 종합 분석해 아주대를 비롯한 10개 대학을 최우수 대학으로 뽑았다고 보도했다. 아주대와 함께 최우수 대학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이다. 가톨릭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15곳은 우수대학으로 뽑혔다.

아주대학교는 △비전수립 지원 △경력개발계획 △금융혜택의 항목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학생들이 꿈(비전)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 구직활동에 나선 학생들이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직활동 관련이나 창업과 관련한 금융지원도 아주대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항목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4년제 대학 198곳 가운데 1차로 50개 대학을 엄선한 뒤 2차로 대학 취업 및 창업 담당 인프라 점검과 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뤄졌다. 1차 평가에서는 전반적인 교육지표를 살펴봤고 2차에서는 취업과 창업 부문에 대한 평가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이 5개 분야 13개 지표로 구성됐다.

- △상담-자이탐색 지원, 비전수립 지원, 경력개발계획
- △정보-취업 기회 정보, 취업 본인 적합정보, 취업 전형대비정보
- △직간접 직업체험 기회-직업체험기회, 학생조직 활동, 외부수상 활동
- △금융-금융플랜 지원, 금융혜택
- △교육과정-정규/비정규 교육과정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우리 사회가 저성장 저고용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대학이 예전처럼 고학년 중심의 단순 취업 지원에만 머무른다면 청년백수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에 포함된 학교들은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한 서비스의 수준과 만족도는 물론이고 그 효과(취업률)까지 모두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역사전시실



아주대학교 박물관은 십수 년 전부터 조상들이 사용해온 도구에 집중해왔다. 오늘날의 화려한 물질문화를 만들어낸 투박하고 수수한 도구들 처럼, 제 분수에 맞고 기본에 충실한 도구만이 세상에 널리 쓰일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에 대학이 학생과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역할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글\_ 김아름 (편집실)

## 실사구시, 도구에서 답을 얻다

지난 4월1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구 주제 전문 박물관인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종합관 1층 로비에 위치한 도구박물관은 웅장 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정갈한 멋을 풍긴다.

도구박물관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달해온 도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구석기시대의 밀개, 톱니날석기부터 오늘날 건축에 사용되는 전자수평기에 이르기까지 전시는 시대별, 용도별로 나뉜다. 선사시대의 석기, 농기구, 취사도구, 의약기구, 도구를 만드는 도구인 생업도구, 길이나 무계를 측정하는 도량형기 등 모두 11종류, 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완성된 짚신의 모양을 다듬을 때 쓰이는 박다위나 담뱃대 안의 구멍을 뚫는데 사용되는 철통 등 쉽게 볼 수 없었던 전시품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잡는다. 전시실 중간 중간에는 도구의 사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도 상영된다. 조선후기 풍속화가 김준근 선생의 기산 풍속도를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한 화면, 무형문화재 명장들의 공예과정을 담은 화면을 통해 관람객들은 각 도구의 쓰임새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아주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실사구시'는 눈과 귀, 손으로 직접 얻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정신을 말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은 모두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도구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보기 좋게 전시한 도구박물관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고 아주인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귀한 장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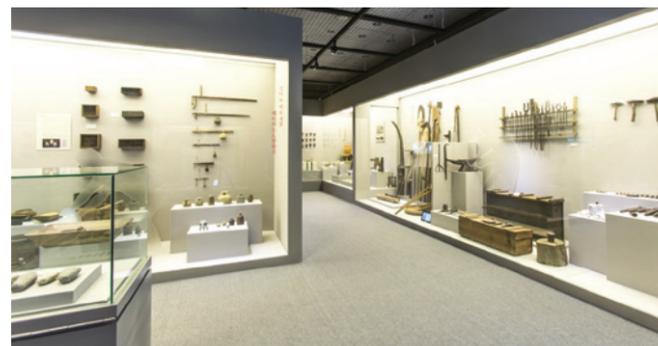
## 40살 아주, 추억을 펼치다

도구박물관은 아주역사전시실과 맞닿아 있다. 전시실간의 공간 분리를 따로 하지 않은 덕분에 두 전시는 편안하게 이어진다. 아주역사전시실은 말 그대로 아주대가 걸어 온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 십 년 전, 아주대 30주년을 기념해 수집했던 자료들을 도구박물관 개관과 함께 다시 정리했다.

아주공업초급대학에서 아주공과대학으로, 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며 받은 인가서와 같은 문서자료나 행사를 기념해 만들었던 색색의 페넌트 등은 옛 아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들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옛 졸업생의 기증품. 특히 대우학원 설립 전의 아주대학교와 당시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상적이다. 오상탁 박물관 팀장은 "아주역사 전시실의 경우, 아주대 졸업생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을 전시하는 공간"이라며 "집에 두고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기증을 통해 후배들과 함께 보고 느낀다면 더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방형 출입시설 덕분인지 학생들은 마치 교정을 거닐 듯 자유롭게 박물관에 들러 전시를 관람한다. 건물은 화려하지만 찾아가 거의 없는 여타의 대학 박물관과 다른 곳. 박물관이라는 단어에서 풍겨오는 답답함과 무게감이 없는 곳. 아주대 도구박물관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도구처럼 아주인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관람안내**  
**관람시간** : 월~금 10:00~17:00 (토, 일 및 공휴일 휴관)  
**관람료** : 무료 (단체관람은 사전 예약)  
**위치** : 아주대학교 종합관 1층 / **전화** : 031-219-2907~8



Interview
조성을 박물관장 / 사학과 교수



### 아주대학교 40주년 기념 도구박물관 개관의 소회는?

우리 박물관은 1993년 설립되어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995년 울곡관 5층에 조그마한 전시실을 마련하였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관람객의 유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중개교 40주년을 기념해 종합관 내에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박물관 개관 시의 역점사항은?

전시실 출입시설을 폐쇄형으로 하느냐 개방형으로 하느냐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폐쇄형은 전시유물의 보안에 유리한 반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방형은 접근성이 좋지만 보안에 취약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감시카메라와 진동감지기 등의 보안시설을 강화해 접근성이 뛰어난 개방형을 택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학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 향후 박물관 운영의 중점은?

울곡관에 남아있는 박물관 학예실과 수장고 등의 시설을 종합관으로 이전해 박물관 전체시설이 한 공간에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다면 도구와 관련된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 아주대 구성원 및 박물관 관람객에게 전하고픈 말은?

우리 박물관은 '도구'를 테마로 한 전문 박물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인류역사에서 도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도구 유물은 당시의 내로라하는 천재들이나 발명가들이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고안해냈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이 현대과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아주대 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도구를 수집해 지역사회 문화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아주대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한국형 연구중심병원을 표방한다



아주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3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그간 진료에만 집중했던 국내 의료기관들의 생태를 바꾸기 위해 진행한 이 프로젝트에는 아주대병원을 포함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총 10곳의 의료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연구중심병원(Research-driven Hospital)이란 환자 진료 위주의 임상병원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기기나 신약 등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관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병원들이 뛰어난 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출의 95% 가량을 환자 진료에서 얻고 있다는 점에 착안, 연구역량이 강한 병원들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10곳의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했다. / 글\_ 이슬 (홍보실)

### 치열한 경쟁 속 아주대병원 선정 비결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8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함에 따라 각 종합병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올해 이 프로젝트에 신청서를 낸 의료기관은 총 25곳(상급종합병원 21곳, 종합병원 2곳, 치과병원 2곳)이었지만 최종 선정기관에 이름을 올린 곳은 아주대병원을 포함해 10곳에 불과했다.

아주대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꾸준히 축적해온 연구역량과 우수한 연구인력이라는 강점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여느 병원들이 '연구'에 그리 집중하지 않던 시절부터 아주대병원은 이미 '진료만으로는 병원이 생존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에 신경을 써 왔다. 아주대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의과학연구소를 설립해 국책 연구과제가 아닌 순수한 자체 연구에 집중하며 차근차근 연구역량을 쌓아 왔고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아 여러 국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현재의 수준 높은 연구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

아주대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준비하며 중점 연구 분야로 꼽은 것은 △알레르기 질환 △퇴행성 골관절염 △노인성 난청 △뇌혈관질환 등 4개 분야와 △중양신생물 △대사성질환 등이다. 막대한 재정적 투자가 가능한 다른 종합병원들과 달리 재원 투입이 많이 필요치 않으면서도 아주대병원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아주대병원은 앞으로 3년간 63억여원을 연구비로 투자할 계획이다. 자체 투자와 함께 공공·민간부문 투자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박해심 아주대병원 연구지원실장은 "준비과정에서 영국과 일본을 참고하기는 했으나 의료체계와 시스템이 달라 한국의 현실과 꼭 들어맞지는 않았다"며 "아주대병원은 한국에 적합한 한국형 연구중심병원을 표방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대병원이 만들어 갈 한국형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의료산업이 국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아주대병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철저하게 '실현 가능성'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먼저 1단계(1~3년차)로 '실용화 촉진 임상중개연구병원을 표방, 기초·발굴 연구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2단계(4~6년차)로는 '한국형 발굴 연구중심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아주대병원이 지향하는 연구중심병원의 핵심이기도 하다. 의료 정보 IT 기술을 활용해 병원을 찾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분석, 데이터화하고 이 과정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실마리를 찾겠다는 설명이다. 3단계(7~9년차)에서는 '선진국형 미래기술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질환 중심 융합연구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고도화 해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통해 아주대학교병원의 연구인력 양성 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의과대학-대학원-전공의-전문의-교수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용적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우수 인재 양성'에 적극 앞장서 왔던 아주대병원이 연구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던 연구비를 임상교수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주로 진료목적으로 적립해두었던 자금을 연구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계획이다.



# EVENT AJOU UNIV. NEWS

## 행사소식

### 1. 잔디구장 준공식 열려

5월28일 아주대 체육관에서 '2013 AJOU 인조 잔디구장 준공식'이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준공식에는 추호석 대우학원 이사장, 안재환 아주대 총장, 김진표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변석화 대학축구연맹 회장, 하석주 전남드래곤즈 감독 등이 참석 했다. 국제 경기장 규모 1면과 보조구장 1면 총 2면의 축구경기장으로 이뤄진 인조잔디구장에는 농구장, 족구장, 육상트랙, 라이트 등의 시설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아주대학교는 앞으로 아주대 학생뿐 아니라 수원 시민들에게도 개방, 생활 체육시설로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2.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원 개원식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원 개원식이 4월2일 열렸다.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원은 지난해 지식경제부 '2012년도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올 봄 학기 첫 신입생을 받았으며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Dependable Software)' 분야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원은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 8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대학원생 전원은 2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고 2학년 여름방학 중에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에 파견되어 교육받게 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안재환 총장과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70여명의 내·외부 인사가 참석했다



### 3. '아주블루비교과활동 증명서' 설명회

4월30일 아주대학교 다산관 대강당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주블루비교과 프로그램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범발급을 시작한 비교과활동 증명서는 학생들이 학과공부 이외에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를 학교가 인증, 증명 서류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이다. 학교가 공식 인증하는 교내외 활동은 전공 소학회,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 국내 및 해외봉사, 교환학생 파견, 교내외 대회 수상, 각종 캠프 및 세미나 참여 등이다. 활동별로 책정된 마일리지가 다르며 총점에 따라 화이트, 그린, 블루, 아주블루 라벨로 인증 레벨이 주어진다.



### 4. '2013 고교-대학 연계간담회' 개최

4월24일 아주대 체육관에서 '2013 고교-대학 연계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각 대학 학장 및 학과장, 교직원인 참석해 310여명의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안재환 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호 입학처장의 아주대 소개, 김동석 입학팀장의 입학 안내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안 총장은 "신입생의 50% 이상이 경기도 지역 학생인 아주대는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대표 대학"이라며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훌륭한 제자를 아주대학교로 보내주신다면 훌륭한 인재로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5. 패트릭 랭베르 프랑스 낭트 시장 강연회

아주대 불어권협력센터의 초청으로 패트릭 랭베르(Patrick Rimbart) 프랑스 낭트시장의 강연회가 개최됐다. 4월15일 오후 3시부터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강연회는 '2013 유럽 녹색 도시 낭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낭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올해의 유럽녹색수도(The European Green Capital)'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강연에서 랭베르 낭트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공공정책 개발과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랭베르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낭트시 주거문제 사무소 회장으로 일해온 바 있다.



### 6. 스승의 날 기념 교수님과 문화산책

스승의 날을 기념해 5월15일 오후 2시부터 '교수님과 문화산책' 행사가 진행됐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수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도록 해 5월9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접수를 받았다. 총 15명의 교수와 102명의 학생들이 만남을 가졌다. 만남은 성호관 앞 잔디밭에서 2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음료와 커피, 카네이션, 교수별 사진촬영 등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에서 송현호(국어국문학과) 교수와 만남을 가진 왕명진(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생은 "평소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쉽지 않았다. 비록 공식적인 행사였지만 평소 뵙고 싶었던 교수님과 친분을 쌓을 수 있던 계기여서 감사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7. 2013 동아리·소학회 콘테스트 개최

아주대 개교 4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2013 동아리·소학회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콘테스트는 동아리 및 소학회 활동이 학생 개개인의 경험 축적과 창의력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하에 기획됐다.

각 동아리 및 소학회가 접수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시상식은 지난 4월11일 오후 율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콘테스트에 참여한 60개 동아리와 182개 소학회의 활동실적을 심사한 결과 각각 20개의 동아리와 소학회가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주대 대학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팀의 활성화 정도와 창의성, 전문성, 진취성 등을 평가한 결과다. 동아리 부문 대상은 유레카(지도교수 최연익)에게 돌아갔고 소학회 부문 대상은 (주)AFIA(지도교수 송영균)가 차지했다.

시상	동아리 부문(지도교수)	소학회 부문(지도교수)
금상	벗 차오름(나봉순) 샐터야학(최상돈)	A.N.S.(오상윤) RPM(황의록) THIS(홍만표)
은상	AFC(이현서) PLUS(임미라) 글리합창단(강지혜) 시사문제 감독회	AFEC(최윤호) 경영심리(김도영) 미공(이상덕) 노루막이(박영무)
동상	검도부(강충권) 5분섬표 고전기타반(유승현) B.E.A.T.(조재운) 아몽극회	스포일러(이현서) A-TRIZ(유승현) 낮에나온반달(김은정) 디사이플스(박영무) 심볼(김영진)
장려상	ABBA(권순정) A-Pin(나봉순) A.T.C.(박영무) 소금꽃(김형규) 2.5g(최상돈) C.C.C. 미디어로지(석혜정)	HaMer(예홍진) 아람(김동원) 증권연구회(이주희) Comp D&A(정기현) 아프로(손정훈) Back Tackle(이평천) 해방말뚝(김봉철)

# Award & Selection AJOU UNIV. NEWS

## 수상 및 선정

### 1. 이교범 교수, 스승의 날 대통령 표창

이교범 교수(전자공학과)가 제32회 스승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학생 지도에 전력을 다해 임했을 뿐 아니라 연구업적에 있어서도 뛰어난 성과를 낸 점을 인정받았다.

5월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교범 교수가 스승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 초중고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95명에게 돌아갔고 그 중 대학에서는 이교범 교수를 포함해 총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2. 환경동아리,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참여

아주대 환경동아리 '클린아주프로젝트(C.A.P.)'가 2013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클린아주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수원시로부터 5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클린아주 프로젝트는 4월10일 '원천마을 벼룩시장'이라는 사업명으로 응모해 2013 수원시 마을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원증서 수여식은 지난 4월8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클린아주가 진행할 사업은 △원천동 주민과 아주대학교 학생 간 문화 교류 및 소통의 장 만들기 △자원의 재순환을 통한 아주대학교와 원천동 일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재능기부와 공연이 함께하는 마을 축제 만들기 등이다. 오는 5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 3. 정기정 동문, 대통령 훈장 받아

아주대학교 정기정 동문(공업화학학과 73)이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해 열린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대통령훈장을 받았다. 과학기술 부문에서 국가 핵융합연구소 ITER 한국 사업단장으로 재직 중인 정 동문외에 3명이 1등급 훈장 창조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28명이 훈장을 받았다.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는 지난 4월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됐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역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업계 종사자 800여명이 참석했다.

### 4. 김다연 학생, 고분자학회 우수학위논문상

아주대학교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에 재학 중인 김다연 학생이 한국 고분자학회가 주최하는 2013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석사부문 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했다.

고분자학회 석사부문 우수학위논문상은 고분자과학·공학 발전 및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분야 대학원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춘계학회에서는 김다연 학생을 포함한 2명의 대학원생에게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 생각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오늘도 도서관에는 공무원 수험서나 대기업 인·적성검사 책자를 쌓아놓고 구슬땀을 흘리는 젊은이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다.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청춘들이지만 '청년백수 100만 시대'라는 현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게 요즘의 현실. 이에 아주대는 청년 CEO 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아주창업캠프를 시작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창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다. 1회와 2회 캠프를 치르면서 나온 사업 아이템이 수십 개, 그리고 수상자 2팀은 이미 사업가로서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1회 캠프 우수상 수상자인 강재민(건축 04)과 2회 캠프 대상 수상자 정기운(경영 02)외 2명을 만나봤다.

## 1. 지능형 차량관리 시스템 개발업체 불콘 창업 글\_ 정대호 (편집실)

“창업을 위한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결과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된답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몇 가지 고난쯤은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겠지요?”

평범한 직장인을 꿈꾸던 학생이 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다. 어느 대학교 4학년 학생과 다름없이 취업준비를 하던 중 머리를 식히기 위해 꺼내든 책 ‘태양아래 모든 것이 특허대상이다’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덕이다.

변리사가 직접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신지식 재산권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해 놓은 그 책을 읽으며 강재민 학생은 무릎을 쳤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신개념 블랙박스’라는 아이템이 구체화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그는 출고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자동차를 밤새 누군가가 긁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참이었다. 일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인의 단서조차 찾기 어려웠던 것. 그때부터 강재민 학생은 ‘신개념 블랙박스’라는 아이템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다. 그 결과 차량의 주행정보를 읽어올 수 있는 단말기 설치를 통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차량의 판별이 쉽도록 한 블랙박스를 개발해 냈다. 접촉 전후의 페달정보와 기어 변속 정도 등 모든 차량정보와 함께 동영상이 서버로 저장되는, 비행기에 설치되는 제품과 같은 블랙박스가 탄생한 것이다.

▼강재민(건축학과 04)



이 아이디어로 강재민 학생은 2011년 열린 제1회 아주창업캠프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아주창업캠프를 통해 가다듬어진 아이템을 가지고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1년 코스의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참가, 총 8000만원의 자금 지원 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도움까지 받았다.

“3차에 걸친 아주창업캠프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은 창업사관학교에 합격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캠프에서 다루었던 질문들이 사관학교에서도 비슷하게 나와 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을 받아 시제품 개발은 거의 완료했지만 아직 몇 가지 과제는 남아있다.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변수를 고려한 안정성 테스트와 안정화 작업 등이 남아 있는 과제. 일례로 여름철 차량 내부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는데, 단말기가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강재민 학생은 지금 휴학 중이다. 당분간은 사업에 열중하고 내년에 복학해 공학도이기에 부족한 경영학적 지식을 채워가려는 게 지금의 계획. 창업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주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너무 많은 고민은 금물입니다. 창업을 위한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결과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된답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몇 가지 고난쯤은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겠지요? 그 험난한 과정을 즐길 수 있다는 각오가 되신 분이라면, 과감하게 뛰어 드십시오”



## 2. ‘결합형 온열매트’로 창업 글\_ 김이름 (편집실)



▲정기운(경영학과 02)



▲김동환(교통공학과 05)



▲노희동(경영학과 08)

제2회 아주창업캠프 대상 수상자 정기운, 김동환, 노희동 학생이 지난 5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아이템 선정부터 입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걸린 기간은 3개월. 1~2년을 준비해도 선발되기 어려운 이곳에서 3개월의 기적을 이뤄 낸 이들을 만났다.

지난해 12월, 세 명의 아주인은 아주창업캠프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결합형 온열매트’라는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는 김동환 학생에게서 출발했다.

“당시 전기장판으로 인한 겨울철 화재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팀원들과 고심 끝에 안전하고 휴대성이 좋은, 조각형태의 결합식 온열매트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으로 정리가 됐어요”

대부분의 참가자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IT 아이템들을 들고 온 가운데 제조업을 선택한 그들에게 심사위원의 시선이 집중됐다.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탄탄한 이론을 토대로 어필한 결과,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캠프에 참여하며 생겨난 창업에 대한 의지는 어느덧 확신으로 변했다.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모색하던 차에 알게 된 게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세 사람은 창업캠프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갔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면접과 PT는 아주창업캠프에서 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아주대 창업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나 3개월의 기간은 너무 짧았다.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서류전형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정기운 학생은 탈락의 이유가 궁금해 입교 모집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의 첫 반응은 ‘귀찮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이제까지 왜 탈락이냐고 전화해 묻는 건 처음’이라며 저희를 별나다고 하셨죠. 몇 번의 부탁 끝에 겨우 저희 계획서의 문제점을 알아 낼 수 있었죠. 그때 전화하지 않았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적받은 부분들을 수정해 다시 지원했다. 다행히도 서류 전형 합격. 하지만 이젠 면접과 PT가 걱정이었다.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기에도 빠듯한 기간이라 다른 건 신경 쓰기가 힘들었던 것. 우려와는 달리 면접을 마치고 나온 이들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밝았다.

“아주창업캠프에서 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면접을 보면서 아주대 창업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타 지원자들에 비해 능숙한 태도로 면접과 PT를 마친 이들은 지난 4월10일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고, 현재는 안산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제품을 연구중이다.

취직을 위해 스펙을 쫓는 이들과 달리 세 학생은 창업을 택했다. 이미 취직이 된 상태였지만 안정적 일자리를 과감히 포기했다. 만약 창업을 포기한다면 더 큰 후회를 할 것 같았다는 세 명의 청년. 그들의 제품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 네 '멋'대로 살아라



건축학과  
전유창 교수

참으로 책임 없는 말이다. 멋대로 살라니! '멋대로'란 하고 싶은 대로 또는 제 마음대로 라는 뜻으로 대개 '주변과의 조우에 실패한, 개인의 강한 개성으로 인한 불협화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곤 한다. 그렇다면 제멋대로 산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책임 없는 태도로 이해하기 쉽지만 '멋'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반추해보면 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멋'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차림새, 행동, 됨됨이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다움 또는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가 있음'이다. 그리고 '나만의 멋'이란 자신만의 태도를 만드는 것, 자신의 개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타고난 혹은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욕망을 표현하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내 멋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

보통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길 바란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행복의 정의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말은 자신의 멋을 찾아 향유하는 삶의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대학생들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불확실한 미래, 취업난, 스펙쌓기 등으로 고민하면서 남들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취업이라는 목표,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 선택지만을 쫓다보니 남들과 다른 나를 발견하면 불안감은 가중된다. 그러면서 또 이율배반적으로 남들과 다른 삶을 꿈꾸기도 한다.

**내 마음을 들여 보고 내 마음의 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길 잃는 시간'도 필요하다. 방향의 시간을 겪고 난 뒤에 비로소 나만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수 있다.**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정의한 행복을 그저 쫓아가고만 있는 친구들도 많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욕구는 엄연히 다르고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법. 행복이란 본래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들의 눈에 비친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자기만의 행복감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요즘 대학생들의 현실을 보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불행은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여 설계하고 판단 하는데서 시작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나만의 멋'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마음을 파악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내 가능성을 탐구하고 나만의 멋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길을 잃는다고 해서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방향의 소중함과 가치를 실감할 수 있다.

우리는 지도 없이 낯선 곳에서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잡아내는 것이 길 잃기의 핵심이다.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머릿속 지도에 대한 의심을 억지로 억누르지 말고 이 의심과 함께 사는 것,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심에서 만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을 들여다 보고 내 마음의 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길 잃는 시간'도 필요하다. 방향의 시간을 겪고 난 뒤에 비로소 나만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수 있다.

멋있는 삶의 바탕에는 '흥'이 자리잡고 있다. 흥이rah 함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력. 흥이 있는 삶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사는 삶과는 달리 효율성이 높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나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20-30년, 혹은 그보다 더 뒤를 보는 긴 안목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리고 오랫동안 '흥'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면 몰입과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를 보면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1만시간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학창시절로 따지면 매일 7시간씩 4년을 투자한 격이다. 내가 정말로 신나게 할 수 있는 일,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꿈을 위해 1만 시간의 법칙을 실천해가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은 쉽게 넘볼 수 없는 전문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단단해진 나의 경쟁력이다.

멋에는 당당함이 있고 흥겨움이 있다. 그리하여 멋스러운 삶에는 여유도 있다. 여러분이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의 가치를 보여주는 젊음이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꿈이란 아직도 젊음의 다른 이름임을, 순진하기만 한 무모한 도전이 아님을 여러분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멋이란 머리가 아닌 가슴을 통해 드러난다. 여러분의 무모함 또는 용기가 마음이 이끄는 나만의 멋을 찾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멋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주대학교 | 정보통신대학원  
AJOU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적을 이기는 IT

NCW학과\_ 김태영 초빙교수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지만 요즘 전쟁에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IT와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는다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만큼 국방 IT기술의 비중이 커진 것. 아주대학교는 일찍부터 이 분야에 집중해 왔다. 합참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을 지내고 올 3월부터 아주대학교 NCW학과 초빙교수직을 맡고 있는 김태영 교수를 만나 국방 IT기술의 중요성과 최근 국방 전술의 흐름을 들어보았다.  
글\_ 이현주 (편집실)

아주대학교는 1998년 정보통신대학원 내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전공 석사과정 신설, 2003년 C4I/SW 연구센터 설립, 2006년 국방전술네트워크연구센터 지식경제부 지정 대학IT연구센터 선정, 2008년 10월 장위 국방연구소 설립 등 국방 IT 기술 분야에 특화된 연구 기반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2008년에는 일반대학원에 NCW(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워크 중심전)학과를 신설해 NCW 전술 정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오고 있다.

국방부 국제협력관(2003),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2004), 합동참모본부 의장(2008)을 거쳐 2009년 9월부터 1년여 간 제42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했던 김태영 교수가 초빙교수로서 아주대학교 강단에 서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군 또한 정보화를 추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학문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주대학교는 일찌감치 이에 착안해 학부 없는 대학원 과정을 만들었고, 추후 학부까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2011년 11월 부터 NCW포럼의 초대 회장을 맡아 1년 반 동안 이끌었는데, 아주대에서 그런 저에게 강의를 맡겨주셨습니다. 아주대의 노력과 국방 업무를 연계 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지요”

일주일에 1~2회 NCW학과에서 국방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특강을 맡고 있는 김태영 교수는 아주대학교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NCW란 군사 작전을 구성하는 탐지체계, 지휘체계, 타격 체계 등을 IT와 네트워크로 연결해 효율적인 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하는 작전수행 방식이다. NCW학과는 NCW이론, 기술, 전술, 체계 및 방법론 등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 또한 양성하고 있다.

“과거 전쟁은 공격자나 방어자나 서로 눈에 보이면 공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공격자는 보다 정확한 타격으로 적을 섬멸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반대로 방어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성, 생존성 강화 노력을 하게 되었지요. 이런 상황이기에 공격자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을 망라하는 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부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규모 전쟁 발발 위험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요인. 흔히 ‘네트워크 중심전’이라 일컫는 NCW가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 군대의 핵심 과제로 일컬어지는 것도 이같은 제반 여건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방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군대를 50만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줄인다고 덩달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비대칭성, 즉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군복무기간 축소 또한 오랫동안 군에 몸담았던 저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축구에 비교하자면 마치 10년씩 군대생활을 한 11명의 프로와 8명의 아마추어가 경기를 치르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군이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하게 전략전술을 바꾸고 더 빨리 움직여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선수들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꼭 필요하다. 국방 IT 기술의 과감한 도입 역시 우리 군의 핵심과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새로운 연합작전 체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등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합한 체계)에 버금가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모든 일상이 IT와 연결된 시대입니다. 국방도 당연히 이를 따라가야 하고 오히려 앞서가야 하지요. 물론 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연구기관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국방 IT인력 양성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대학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42년간 군복을 입고 장관 자리에까지 올랐었지만 김태영 교수는 그것이 본인이 꿈 꾸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였던 그에게,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우연하게 사관학교 입학이라는 길이 찾아왔고 그 길을 따라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고.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냐는 물음에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떠올리는 것도 우연은 아닌 듯 싶다.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갈림길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길을 택할지 신속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되, 결정한 뒤에는 돌아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최종욱 동문(산공 78)이 신임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덧 100일이 훌쩍 지났다. 사업과 동문회 업무로 해외 체류기간이 길어 인터뷰 일정 잡기도 힘들었던 그를 어렵사리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글\_ 정우준 (홍보실)

# 모이면 큰 힘,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총동문회장\_ 최종욱



**학력**  
·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78)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경력**  
·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1991~현재)  
· (주)마크애니 대표이사(2000~현재)  
· 아주대학교 제19대 총동문회장(2013~현재)

### 총동문회장이 된 소감과 포부를 밝힌다면?

막상 맡고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최근 사회적인 인식이나 분위기가 동문회란 조직에 호의적이지 않아 운영이 쉽지 않다.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회장으로서 동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고 싶다.

### 재학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는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군대를 다녀와서 뒤늦게 아주대에 입학했다. 공부보다는 연애를 열심히 했고, 3학년 말에 결혼했다. 다른 학생들보다 우여곡절 많은 학창시절을 보낸 것 같다.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10시였던 통금시간 이후에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 술과 안주를 사오거나 몰래 따온 포도를 소주와 섞어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아주대'는 어떤 존재로 남아있나?

역량을 키워준 소중한 발판이 된 곳이다. 미래예측 능력, 국제적인 시각 그리고 큰 꿈. 재학 당시 이한빈 학장은 끊임없이 '미래'를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프랑수아르만 1주일에 4시간씩 공부시키는 등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시야와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는 배포와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 취임 100일을 넘어섰는데 총동문회장직을 수행해보니 어떤가?

보안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살길은 해외다'라는 믿음으로 일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어 회장직 수행이 쉽지 않다. 회장이 되어서 흩어진 동문들 모으고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대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사회생활의 시작점이었던 곳 만큼 모교 발전과 동문 단합에 기여하고 싶다. '잘해야 한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다.

### 총동문회를 이끌어 가는 철학이 있나?

'다 함께 가자'라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삼고 싶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함께 나누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각 분야의 동문들이 함께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 현재 총동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한다면?

소시에떼도네르와 글로벌 네트워킹 사업이다. 소시에떼도네르 사업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원 약속이 잇따르고 있다. 또, 글로벌 네트워킹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문들을 네트워크로 엮어보자는 취지이다.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결국 후배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어렵지만 꾸준히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 아주대가 개교 40주년을 맞이했다. 아주대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한다면?

아주대학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서는 모두들 놀라워한다. 불과 40년 만에 좋은 연구 업적과 학생 중심의 교육제도, 그리고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친 교직원들의 팀워크는 놀라운 성과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명도와 시스템들이 망가질 수 있다. 과거 대학은 수험생들이 알아서 몰려들던 '대학의 수면(Sleeping) 시대'였지만, 지금은 모든 대학들이 생존과 번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주를 성장시킨 그 열정과 의지를 다시 다질 필요가 있다.

### 40주년이 되면서 '아주대'란 브랜드의 경쟁력에 대해 평가가 분분하다. 아주대란 브랜드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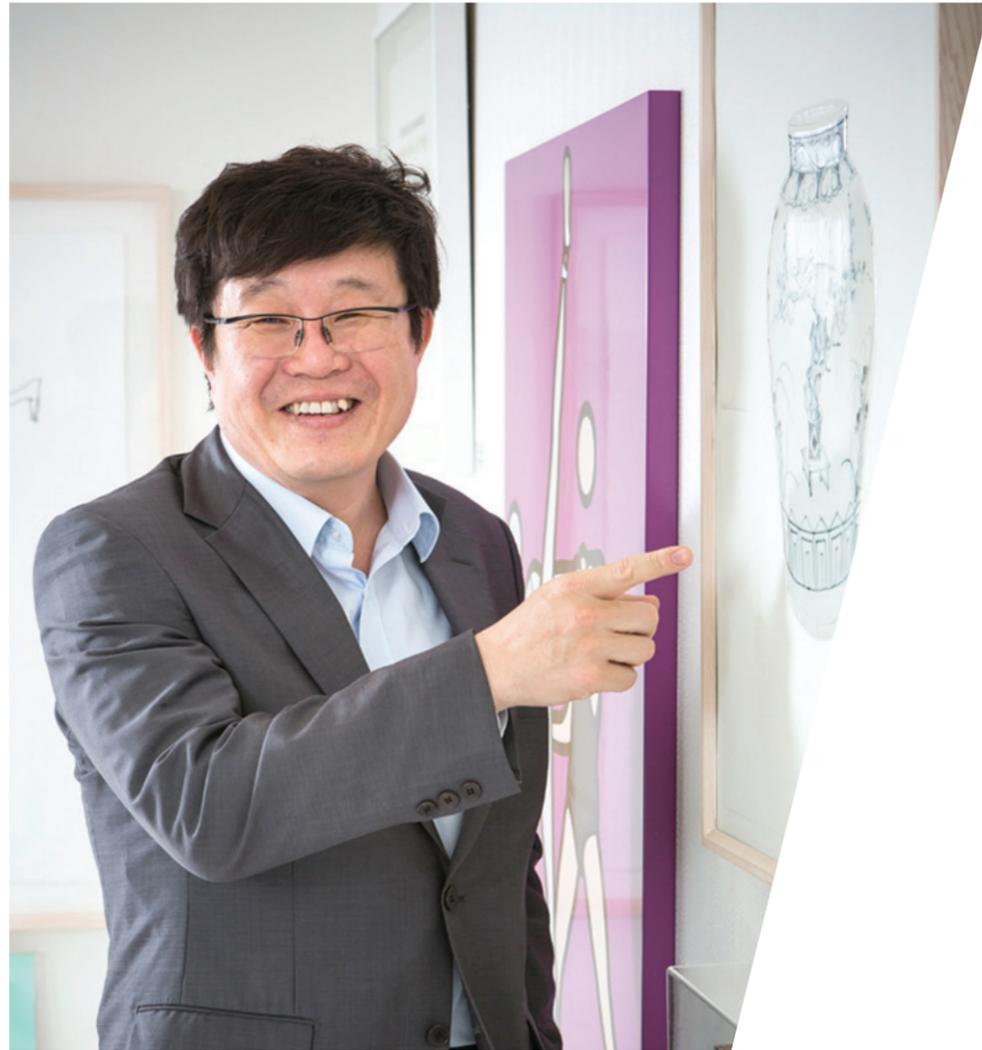
가끔 '아주대학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나?'라고 묻는 동문들도 있지만, 그건 마치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당신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여인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어머니'이듯이 아주대학은 내가 공부하고 졸업한 대학이기에 소중한 모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아주대는 이미 수준 높은 대학이고,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높다. 이름값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만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아주'라는 브랜드에 자긍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 성공한 사업가로서 진로를 고민 중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사회는 분화하고 계층은 이동한다고 믿는다. 오늘 인기 있는 직업이 20년 후에도 좋은 직업으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은 낮다. 해방 이후 전문직인 계층이 두텁지 않던 시절 '사자 직업이 모두가 선호하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대우가 많이 바뀌었다. 현재까지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 직업들도 앞으로 어떻게 평가될는지 알 수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흥미있어 하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고령화 사회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만큼, 졸업 후 30~4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입사를 위해 고시촌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다.

# 공부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기에

김대현(산업공학 82) 동문



대학 시절 너무도 배가 고팠다. 마음 놓고 공부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이십대 청춘의 흔한 방향도 김대현 동문에게는 사치일 뿐이었다. 정신 없이 달려온 30년, 여유가 생기고 주위를 둘러보자 또 다른 '나'의 모습을 한 후배들이 눈에 들어 왔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따뜻한 손을 내밀고 싶어졌다.

글\_ 이경아 (편집실)

(주)벤타코리아 대표 김대현 동문은 지난 2011년 2학기부터 총 17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조금 특별한 점은 후배들의 등록금이 아니라 한 달 생활비 3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한 학기에만 지급하지 않고,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면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1학기에는 김동영(산업공학과), 유지운(국어국문학과), 이지현(간호학과) 학생이 '벤타코리아 장학금'을 수령했다.

## ‘실천하는 행동가’가 되라

“2020년까지 303명의 장학생을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 목표중 하나예요. 303명인 이유는 벤타코리아의 창립기념일이 3월3일이기 때문이죠. 이 비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40여명의 직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고, 뚜렷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느껴 다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을 위한 기부도 십시일반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벤타코리아의 장학생은 아주대 학생들을 포함해 약 70명에 이른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있으며,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의 생활장학금을 대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받는다. 굳이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김 동문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바로 생활비였기 때문이다. 30년 전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아주대학교에서 마치 청학동 선비와 같은 생활을 했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젊은날의 방향을 막아주었지만, 당시 여유 있는 친구들이 부럽지 않을리 없었다.

“벤타코리아 장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이예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은 것이죠. 지금은 제가 나온 산업공학과 학생 한 명, 제가 활동했던 봉사동아리 ‘이데알레 (IDEALE)’ 소속 학생 한 명, 그리고 저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데알레 송현호 지도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국문학과 학생 한 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1년마다 1명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 동문은 벤타코리아 장학금 외에 색소폰 연주자와 미술 작가들을 후원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색소폰을 사랑하는 젊은 음악인 4명이 모여 만든 ‘서울색소폰콰르텟’의 연주회를 기획·후원하며, 1년마다 작가들을 선정해 작업 장소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벤타코리아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공기청정 기능과 가슴기 역할을 하는 독일의 벤타 에어워셔(Venta Airwasher)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공기순환기인 ‘보네이도 (Vornado)’와 홈베이킹 브랜드 ‘스타베이커리(Star Bakery)’ 등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두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에게 신뢰를 보낸 독일 벤타 회장의 도움으로 재기할 수 있었고, 절묘한 순간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그에게 다가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 생각했던 일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많고요. 다 주변의 풍문만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말 한 마디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스스로 확인해 본 후에 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손으로 짚어 맛도 보고, 정말 다 해보고요. 산의 정상에 올라보지도 않고 ‘구글맵’으로 본 후 다 안다는 듯이, 그래서 가볼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누구도 에어워셔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벤타를 선택했고, 보네이도와 스타베이커리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의 시선과 반응에 신경쓰지 않고, 스스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면서 국내에 없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다. 지금도 그는 보다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는 꿈을 꾸고 있다. 생각하는 몽상가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행동가가 될 것. 한 번 시도한 일은 끝까지 몸소 확인해볼 것. 아주대 학생들에게 전하는 그의 당부다.



# NEWS BRIEF AJOU UNIV. NEWS

## 그 외 소식

### 개교 40주년 기념 '지속가능 에너지' 심포지엄 개최

아주대학교와 프랑스 민느 파리테크(Mines ParisTech), 일본 교토대학교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3월29일 에너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아주대학교 개교 4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에너지시스템 사업단과 나노정보융합 기술연구소, 불어권협력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안재환 총장과 제롬 파스키에(Jrme Pasquier) 주한 프랑스 대사, 정근모 명예교수(현 한국전력 고문)의 축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순서에서는 아주대 김형택 교수가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단-전략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2부에서는 이교범, 박은덕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민느 파리테크와 교토대학 연구진의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 중개연구소 관련 국제 심포지엄 열려

5월3일 아주대학교 올곡관 영상회의실에서 개교 4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중개연구소 관련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아주대는 앞으로 중개연구소를 통해 학문 단계의 기술을 실용화 단계까지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각종 학문 기술적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앞서 유사한 연구소를 운영해온 학자들을 초청해 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와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에서 각각 케빈 그림스(Kevin Grimes), 제프리 글렌(Jeffrey S. Glenn) 박사와 조남준 박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아주대에서는 김재호 연구처장과 박해심 아주대의료원 연구지원 실장이 참여했다. 또한 노재성 경기바이오센터 센터장, 강학희 아모레퍼시픽 CTO, 박재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무, 박영준 CJ제약 연구소장도 각 기관의 운영전략과 연구동향을 발표했다. 이 심포지엄을 주관한 김재호 연구처장은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대학, 약학대학과 의과대학, 나아가 아주대병원을 아우르는 융합학문 모델을 제시하고자 중개 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며 "또한 아주대학교가 가진 우수한 연구성과와 자원을 활용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 학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3 아주멘토 프로그램 멘토 발대식

2013학년도 아주멘토 프로그램의 멘토 발대식이 3월27일 저녁 아주대 성호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교육부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지원으로 지난 2009학년도부터 기초교육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주멘토 프로그램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과의 선배들이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에의 빠른 적응과 그에 걸맞은 학업 성취를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과별 대표 멘토와 멘토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멘토 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는 선서의 시간을 가졌다. 기초교육대학장으로서 행사에 자리한 박영동 교무처장은 멘토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아주멘토 프로그램이 아주대학교 문화창달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멘토 여러분들이 헌신과 열정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2013학년도 멘토는 총 94명으로, 1167명의 신입생을 한 학기 동안 멘토링하게 되며 이 활동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들은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아주블루 비교과 성적표에 마일리지 부여된다.



### 약대 미래발전위원회 발족

약학대학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4월24일 아주대 약대 학장실에서 진행됐다. 발전위원회는 약대 발전기금 모금 및 미래발전방안 추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는 안재환 총장과 약대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교내외 인사, 교직원이 참석했다. 안총장이 직접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미래발전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이범진 약대 학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강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문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사장, 김원배 동아ST 대표이사 부회장, 권혁구 약사공론 사장, 강석희 CJ E&M 대표, 백유현 한국제약기술교육원 원장, 김동연 일양약품 사장, 정희용 도병원약국 대표, 김남주 약국파낙스 대표, 함삼균 경기도약사회장, 박성진 수원시약사회장, 최종욱 아주대 총동문회장, 문창규 약대 대우교수, 정이숙 약대 학과장, 서원희 약과 학연구소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올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이다.



### 산학협력단, 2012 아주대 특허연보 발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이전 센터가 '2012 아주대학교 특허기술 소개'라는 제목으로 특허 연보를 펴냈다. 지난해 아주대 구성원들이 등록된 특허는 총 132개로 연보에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등 전분야의 특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연보는 교내에서는 학장·학과장에게, 교외에서는 기술이전 수요 기업 및 유관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안재환 총장은 발간사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대학교의 우수한 연구 성과와 기술 자원이 효율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로 연계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연보가 더욱더 많은 미래창조형 부가가치를 담을 수 있는 보고(寶庫)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특허연보는 아주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iacf.ajou.ac.kr/iacf/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름아 반가워, 알로夏~ 젊음아 반가워! Aloha~

하와이의 인사말 Aloha, 하지만 이번 원천대동계 기간에는 열정적이고 뜨거운 아주가 푸르른 녹음 같은 젊음에게 건네는 인사였다. 5월14일부터 16일까지 응원대제전, 끼콘테스트, TBS 공개방송, Shall we Dance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그 외에도 캠퍼스 곳곳에서 여러 소학회와 동아리들의 작품전시와 공연이 있었으며,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점도 열렸다. 포토스케치를 통해 원천대동계 사흘간의 꿈과 낭만을 들여다 보자.



①

① 진정한 축제를 즐기고 싶다면 먼저 그려라!

② Shall we Dance?

③ 단 3일간만 볼 수 있는 모든 행사들은 학우들로 하여금 발을 땀 수 없게 만든다.

④ 유도왕을 이겨라!  
"1분안에 메치기를 성공해야 한다!"

⑤ 축제기간동안 학교를 물들인 「알로夏」풍선

⑥ '사랑은 없다'를 열창중인 가수 거미



②



③



⑦

⑦ 오늘을 기다렸다.  
시험 스트레스와 다가올 무더위를 한방에!

⑧ 우린 아주대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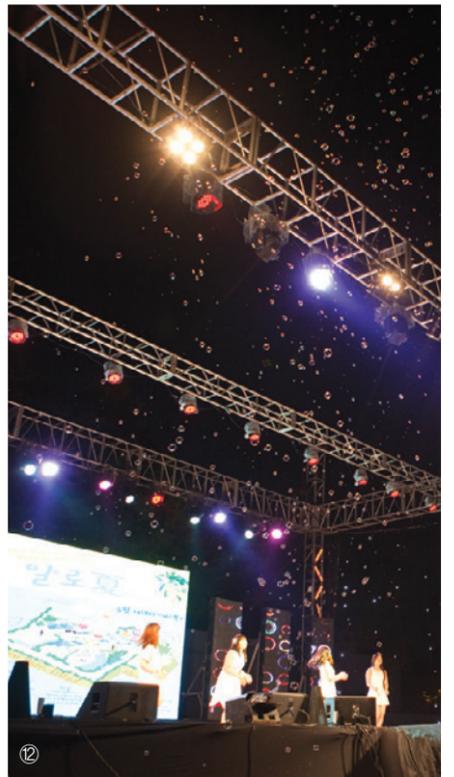
⑨ 축제 첫날, 응원단의 힘찬 손짓



⑪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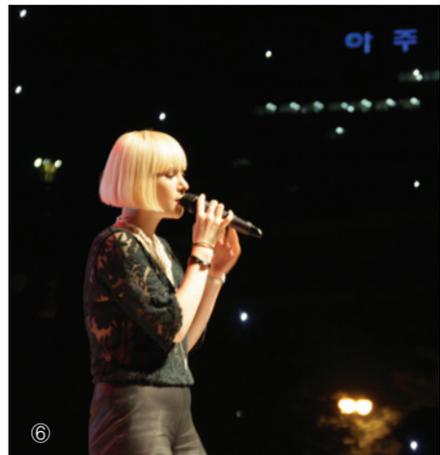
⑫



④



⑤



⑥



⑧



⑩

⑩ 개성 충만한 아주인의 무대, '끼콘테스트'

⑪ 아주대 탁구의 제왕을 가리는 날

⑫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동아리 공연

# MEDICAL CENTER AJOU UNIV. NEWS

## 의료원 소식



### 1. 아주대학교의료원 통합 웹사이트 오픈

아주대학교의료원 통합 웹사이트가 리뉴얼되어 지난 4월17일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였다.

새 단장된 홈페이지는 의료원, 병원, 건강증진센터,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연구기관과 전문센터, 진료과에 이르기까지 총 40여 개에 달한다. 통합 사이트 오픈과 함께 모바일 홈페이지(m.ajoumc.or.kr)가 신설됐고, 다국어 홈페이지도 콘텐츠를 보강하여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서비스한다.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을 준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병원 홈페이지에서는 메인화면에서 ▲진료예약 ▲예약조회 ▲의료진 ▲진료과로 바로 연결되어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 2. 공무원연금공단과 MOU 협약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 4월29일 공무원연금 공단과 공상 환자의 요양비보상 편의제공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유희석 병원장과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유희석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협약 체결을 기쁘게 생각하며, 가족과

같이 진료할 것'을 약속했다. 안양호 이사장 또한 "아주대학교병원의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공무원이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 3. (주)한화/무역과 해외 병원사업 공동추진 MOU 체결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주)한화/무역이 5월 13일 오후 3시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해외 병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주)한화/무역은 해외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비롯하여 해외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과 해외환자 유치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시행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주대학교의료원 소의영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희석 병원장, 탁승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의료원 주요 보직자들과 (주)한화/무역의 박재홍 대표이사, 진광만 전략부문장 및 병원수출팀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해외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 4. 베트남 보건부장관 일행 방문

위엔 티 김 띠엔(Nguyen Thi Kim Tien) 베트남 보건부장관 일행이 4월6일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국민건강보험시스템 견학 일정 중 이뤄진 것으로, 베트남 보건부 장관과 국제협력국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집중치료실 등을 견학했다. 환영식에서 아주대학교에 대해 소개를 받은 위엔 티 김 띠엔 장관은 "아주대학교병원이 우수한 인력과 의료기술, 효율적인 진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베트남과 아주대학교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 5. 베트남 의료진 11명에게 선진의료기술 전수

아주대학교병원은 5월28일 '2013년 베트남 연수생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베트남 의사 6명과 간호사 5명에 대한 연수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연수에는 하노이외과대학을 비롯한 총 7개 병원에서 참가하여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외과와 간호부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의 선진화된 기술을 전수받게 된다.

아주대학교병원은 대우재단과 공동으로 '국내 다문화 가족 및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의료인 연수교육을 시작해 2009년에는 의사 4명, 2010년에는 의사 8명, 간호사 2명, 2011년에는 의사 6명, 간호사 2명, 임상 병리사 1명, 2012년에는 의사 9명, 간호사 1명에 대한 연수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의사 6명, 간호사 5명에게

우리나라의 선진의료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 6. 故 김현만 교수 10주기 맞아 심포지엄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센터는 지난 4월 19일 아주대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학교실 초대 주임교수인 고(故) 김현만 교수의 10주기를 기념해 내분비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내분비 분야의 국내외 석학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갑상선, 골다공증, 당뇨병 등 내분비질환의 최신 지견에 대한 발표와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고 김현만 교수의 10주기를 맞아 김현만 교수의 유가족들은 내분비대사내과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유가족들은 고인을 잊지 않고 이런 뜻 깊은 추모식과 심포지엄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분비대사내과 학교실의 초대 주임 교수로서 그 기틀을 마련하고, 교실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고인의 뜻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 7. 아주대병원 심도자 검사 환자 4만명 돌파

아주대병원 순환기내과가 심도자 검사 4만명을 돌파했다. 순환기내과는 지난 2003년 7월 개원

9년 만에 심도자 검사 1만명을 돌파한 후 2007년 5월에 2만명, 2010년 8월에 3만명을 돌파했으며 이후 3년도 채 안되어 4만명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3년 동안 매년 평균 3330명의 환자에게 7300건의 검사를 수행한 셈으로 국내외 최우수 기관과 비슷한 성적이다.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수준의 의료진이 포진해 있으며, 치료 성공률 98%를 넘는 우수한 시술 성적 그리고 첨단장비를 통해 최신 진료를 제공하며 '심혈관센터'로서 확고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Donation AJOU UNIV. NEWS

## 기부소식

### 장학금 기부 이종철·이삼구 동문에 감사패 전달

아경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낸 경영대학원 동문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3월8일 열렸다. 아경장학재단은 2007년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아주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재환 총장은 이날 이종철(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3기), 이삼구(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5기)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성금속 대표로 재직중인 이종철 동문은 그동안 아경장학재단에 8000여만원을 기부했으며 아경장학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해동산전 대표인 이삼구 동문 역시 3000여만원을 아경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 동문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아주대학교에 축구부 후원금, 발전기금 등으로 총 3800만원 상당을 기부하기도 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안재환 총장과 박종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 한재수 전 아경장학재단 이사장, 이종철 아경장학재단 이사, 박호환 경영대학원장, 김형식 발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아경장학재단에서 올 1학기 아주대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총 7600만원으로 전체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생들에게 지급됐다.



### 김정두 동문·아주대 후원의 집 장학금 전달식

6월7일 오후 율곡관에서 학생 5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제1회의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불문과 84학번 김정두 동문이 학생 3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정두 동문의 기부로 만들어진 장학금은 불문과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총 1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김 동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프레시원 강남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날 안병록 무교동일품낙지 대표 역시 300만원의 장학금을 2명의 재학생에게 전달했다. 아주대학교 앞에 위치한 무교동일품낙지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아주대 후원의 집 캠페인에 참여해왔다.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열린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에서는 안재환 총장이 김정두 동문과 안병록 대표에게 직접 감사패 및 기부자 예우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구 기획처장, 송현호 학생처장, 조재형 인문대학장, 박일본 학생지원팀장, 이강준 대학발전본부 과장이 참석했다.

### 조인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5월9일 아주대학교 율곡관 제1회의실에서 조인(Join)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조인장학금은 김선기 동문(전자 79)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김선기 동문과 안재환 총장, 송현호 학생처장, 김민구 기획처장, 김영길 정보통신대학장과 조인장학금 장학생 12명 등이 참석했다.

올 1학기에는 총 2900만원의 조인 장학금이 12명의 재학생에게 주어졌고 2학기에는 총 18명의 조인장학생이 선발될 예정이다.

김선기 동문은 전자부품 개발 및 제조사인 조인셋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김 동문은 올 1월 장학금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안재환 총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며 “후배들을 위해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해준 김선기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이어 “오늘 장학금을 받은 재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정진해 선배들에게 받은 사랑을 앞으로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당부했다.

### 아경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4월16일 오후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2013학년도 1학기 아경장학재단장학증서 전달식이 열렸다. 아경장학재단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2007년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아주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은 화학공학과 이시운 학생을 비롯해 22명이다. 박종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이 직접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아경장학재단은 대학원과 학부 장학금 뿐 아니라 인문대학 학술세미나, 아주대 병원 연구지원비, 교육여건 개선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올 전반기에도 재학생 2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총 8000여만원을 아주대에 지원했다.

안재환 총장은 축사를 통해 “나눔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아경장학재단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경영대학원 동문들이 학교와 후배들에게 갖고 있는 애정이 남달랐던 덕분”이라며 “오늘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기부와 나눔이 주는 의미를 후배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재환 총장, 해동과학문화재단에 감사패 전달

4월18일 오전 아주대학교 율곡관 총장실에서 해동과학문화재단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아주대 학생들에게 총 54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안재환 총장과 최윤호 공과대학장, 박일본 학생지원팀장이 참석했고 해동과학문화재단에서는 이정수 사무국장이 대표로 자리했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1991년 설립되어 학문 발전과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공익적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대덕전자설립자 김정식 대표가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해동과학문화 재단은 지난해 1학기부터 아주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고 올 1학기에도 4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게 됐다.



# Donation List

## 1-1-1 캠페인 기부자 (2013. 3 ~ 2013. 6)

신동철 / 신동혁 / 신동희 / 신두철 / 신만재 / 신명호 / 신문정 / 신미경 / 신미정 / 신병우 / 신상기 / 신상운 / 신상진 / 신선희 / 신성은 / 신성철 / 신순옥  
 신승수 / 신영철 / 신용강 / 신욱 / 신윤섭 / 신응식 / 신의수 / 신재봉 / 신재수 / 신재숙 / 신재윤 / 신정섭 / 신정수 / 신정인 / 신정진 / 신정철 / 신종대  
 신준하 / 신준한 / 신준호 / 신준현 / 신창호 / 신춘섭 / 신태창 / 신현국 / 신현남 / 신현주 / 신형섭 / 신호연 / 신호준 / 심관용 / 심대성 / 심동섭 / 심우성  
 심우영 / 심웅섭 / 심인석 / 심정철 / 안규세 / 안기홍 / 안남옥 / 안대근 / 안동현 / 안명섭 / 안미선 / 안미연 / 안병립 / 안병수 / 안병식 / 안병열 / 안병철  
 안상수 / 안선미 / 안선호 / 안승숙 / 안순일 / 안영선 / 안영찬 / 안영환 / 안예환 / 안익훈 / 안재성 / 안재영 / 안재환 / 안재희 / 안정열 / 안정표 / 안지연  
 안창영 / 안창준 / 안철순 / 안치규 / 안태훈 / 안현남 / 안현숙 / 안혜영 / 안호영 / 안홍정 / 양광모 / 양광하 / 양국현 / 양기천 / 양기태 / 양남미 / 양문모  
 양미영 / 양민수 / 양병용 / 양보아스 / 양봉식 / 양성모 / 양성식 / 양승권 / 양승렬 / 양승석 / 양사명 / 양애영 / 양영재 / 양원석 / 양윤정 / 양익주 / 양인식  
 양재현 / 양정안 / 양현덕 / 양호진 / 양희창 / 양희경 / 양희문 / 양희성 / 양희인 / 양희찬 / 어경임 / 어승규 / 어윤하 / 엄경식 / 엄경이 / 엄민희 / 엄애현  
 엄재득 / 엄정완 / 엄태문 / 엄태호 / 엄향남 / 여각동 / 여철현 / 연혜숙 / 엄경훈 / 엄동일 / 엄병국 / 엄성현 / 엄우영 / 예홍진 / 오건석 / 오경아 / 오경윤  
 오경호 / 오귀석 / 오귀훈 / 오금복 / 오대지 / 오동근 / 오란석 / 오명숙 / 오명순 / 오미정 / 오민자 / 오병량 / 오상경 / 오상근 / 오상탁 / 오성원 / 오성호  
 오세태 / 오수기 / 오순아 / 오묘표 / 오명권 / 오영숙 / 오영태 / 오영택 / 오영호 / 오왕모 / 오용인 / 오운영 / 오은경 / 오은영 / 오재영 / 오정락 / 오정에  
 오주심 / 오주영 / 오준서 / 오창석 / 오창준 / 오창현 / 오태근 / 오태승 / 오택원 / 오현숙 / 오현우 / 오형철 / 오형택 / 왕남원 / 왕영숙 / 용세중 / 용은희  
 우동석 / 우병주 / 우상욱 / 우상혁 / 우신석 / 우용재 / 우은경 / 우은미 / 우재희 / 우정석 / 우중균 / 우창완 / 우춘섭 / 우효정 / 원성화 / 원용식 / 원원희  
 원주경 / 원치호 / 위규범 / 위정식 / 위홍환 / 유갑진 / 유강하 / 유경호 / 유경희 / 유권중 / 유권중 / 유기상 / 유덕기 / 유동문 / 유동복 / 유명섭 / 유명호  
 유문숙 / 유미경 / 유병대 / 유보형 / 유상근 / 유상열 / 유상원 / 유성렬 / 유성재 / 유승선 / 유승화 / 유시대 / 유명미 / 유명숙 / 유명애 / 유명해 / 유옥순  
 유우수 / 유용식 / 유우근 / 유인봉 / 유인상 / 유재권 / 유재석 / 유재웅 / 유진원 / 유창순 / 유철형 / 유창상 / 유태근 / 유태현 / 유한석 / 유현준 / 유혜주  
 유호상 / 유호승 / 유희석 / 육상욱 / 육현민 / 윤광석 / 윤기원 / 윤도원 / 윤병범 / 윤민경 / 윤상익 / 윤상중 / 윤석열 / 윤석희 / 윤선희 / 윤성택 / 윤성희  
 윤순영 / 윤승원 / 윤승현 / 윤연숙 / 윤영옥 / 윤영이 / 윤영주 / 윤영화 / 윤용식 / 윤원식 / 윤은경 / 윤인명 / 윤인성 / 윤인수 / 윤임중 / 윤장희 / 윤재덕  
 윤재승 / 윤중엽 / 윤종일 / 유주용 / 윤중근 / 윤진 / 윤진숙 / 윤춘기 / 윤하경 / 윤학근 / 윤현철 / 윤혜경 / 윤혜정 / 윤환 / 은미희 / 은유진 / 이강기 / 이강숙  
 이강준 / 이강현 / 이건화 / 이경규 / 이경복 / 이경석 / 이경섭 / 이경수 / 이경애 / 이경우 / 이경재 / 이경중 / 이경중 / 이경현 / 이경호 / 이계상 / 이계수  
 이계주 / 이광노 / 이광미 / 이광용 / 이광원 / 이광중 / 이광호 / 이광희 / 이교범 / 이국재 / 이군재 / 이규백 / 이규철 / 이규환 / 이근석 / 이금례 / 이금숙  
 이기근 / 이기명 / 이기선 / 이기섭 / 이기영 / 이기중 / 이기홍 / 이기훈 / 이난희 / 이대범 / 이대현 / 이도경 / 이도섭 / 이도향 / 이동규 / 이동기 / 이동래  
 이동렬 / 이동성 / 이동열 / 이동원 / 이동진 / 이동호 / 이만기 / 이만성 / 이면 / 이명길 / 이명운 / 이명자 / 이명주 / 이명호 / 이명희 / 이문근  
 이문상 / 이문수 / 이문희 / 이미경 / 이미나 / 이미영 / 이미옥 / 이미자 / 이민경 / 이민선 / 이민성 / 이민우 / 이민자 / 이민호 / 이범식 / 이범규 / 이범근  
 이병기 / 이병대 / 이병선 / 이병욱 / 이병조 / 이병호 / 이보구 / 이보미 / 이보영 / 이보형 / 이복실 / 이복훈 / 이봉석 / 이부영 / 이분열 / 이상근 / 이상  
 이상국 / 이상권 / 이상규 / 이상미 / 이상민 / 이상범 / 이상성 / 이상순 / 이상신 / 이상아 / 이상엽 / 이상운 / 이상원 / 이상천 / 이상철 / 이상현 / 이상훈  
 이석원 / 이석현 / 이선경 / 이선미 / 이선형 / 이선희 / 이성근 / 이성빈 / 이성숙 / 이성식 / 이성아 / 이성엽 / 이성우 / 이성운 / 이성윤 / 이성현 / 이성희  
 이순선 / 이순호 / 이수영 / 이수진 / 이수형 / 이숙향 / 이순덕 / 이순성 / 이순아 / 이순영 / 이순이 / 이순태 / 이순택 / 이순구 / 이순근 / 이순미 / 이순우  
 이승제 / 이승현 / 이승희 / 이신형 / 이양희 / 이연강 / 이연숙 / 이연순 / 이연희 / 이영경 / 이영구 / 이영국 / 이영규 / 이영록 / 이영미 / 이영범 / 이영석  
 이영수 / 이영옥 / 이영일 / 이영창 / 이영철 / 이영학 / 이영현 / 이영호 / 이예리 / 이옥란 / 이옥자 / 이왕형 / 이왕균 / 이왕로 / 이왕복 / 이왕수 / 이왕욱  
 이왕운 / 이왕훈 / 이우암 / 이우영 / 이운갑 / 이운호 / 이원기 / 이원찬 / 이윤정 / 이윤중 / 이윤희 / 이은 / 이은경 / 이은규 / 이은성 / 이은영 / 이은주  
 이은형 / 이은호 / 이은희 / 이웅정 / 이웅표 / 이인규 / 이인수 / 이인순 / 이인풍 / 이인호 / 이일주 / 이자성 / 이장근 / 이재권 / 이재길 / 이재덕 / 이재려  
 이재민 / 이재성 / 이재순 / 이재양 / 이재욱 / 이재용 / 이재은 / 이재의 / 이재진 / 이재평 / 이정돈 / 이정란 / 이정복 / 이정상 / 이정순 / 이정선  
 이정식 / 이정옥 / 이정우 / 이정원 / 이정인 / 이정재 / 이정주 / 이정준 / 이정태 / 이정현 / 이정호 / 이정후 / 이정훈 / 이재현 / 이준근 / 이준섭 / 이준영  
 이준오 / 이준용 / 이준욱 / 이준원 / 이준응 / 이준일 / 이준주 / 이준찬 / 이준태 / 이준현 / 이준훈 / 이주환 / 이준섭 / 이준영 / 이준은 / 이준호 / 이지복  
 이지상 / 이지숙 / 이지연 / 이지원 / 이지현 / 이진관 / 이진석 / 이진선 / 이진용 / 이진우 / 이진호 / 이진희 / 이찬영 / 이창란 / 이창수 / 이창우  
 이창원 / 이창훈 / 이채우 / 이철기 / 이춘형 / 이춘균 / 이춘식 / 이춘용 / 이치인 / 이태욱 / 이태원 / 이태용 / 이태재 / 이태호 / 이태희 / 이택천 / 이택형 / 이평애  
 이평천 / 이필홍 / 이하영 / 이하구 / 이하규 / 이하록 / 이하석 / 이하식 / 이하영 / 이해남 / 이해준 / 이항길 / 이항숙 / 이항희 / 이현규 / 이현명 / 이현상  
 이현실 / 이현숙 / 이현주 / 이현진 / 이현택 / 이현행 / 이형모 / 이형무 / 이형식 / 이형익 / 이형천 / 이형표 / 이혜경 / 이혜선 / 이혜순 / 이혜옥 / 이호근  
 이호중 / 이화배 / 이화수 / 이화숙 / 이회영 / 이호순 / 이효식 / 이효철 / 이홍수 / 이희광 / 이희관 / 이희연 / 이희영 / 인정근 / 인정숙 / 임경빈 / 임근찬  
 임금자 / 임기영 / 임기한 / 임동수 / 임동주 / 임동하 / 임명재 / 임명훈 / 임무한 / 임문채 / 임미옥 / 임민호 / 임병국 / 임병분 / 임병엽 / 임병길 / 임석배  
 임석주 / 임석철 / 임선옥 / 임성욱 / 임양미 / 임영교 / 임영무 / 임영준 / 임옥순 / 임용백 / 임윤희 / 임인경 / 임인섭 / 임인숙 / 임인재 / 임재성 / 임재수

임재익 / 임정애 / 임정혁 / 임정희 / 임종규 / 임종석 / 임종섭 / 임종현 / 임종선 / 임종환 / 임지석 / 임지영 / 임진규 / 임창근 / 임창규 / 임채숙 / 임채원  
 임채정 / 임춘기 / 임춘섭 / 임춘성 / 임춘식 / 임태규 / 임평옥 / 임현 / 임홍식 / 임화선 / 장경남 / 장경옥 / 장광열 / 장기순 / 장도영 / 장문상 / 장병윤  
 장병정 / 장봉희 / 장삼만 / 장석일 / 장석진 / 장선규 / 장성천 / 장세덕 / 장소영 / 장영미 / 장영수 / 장용석 / 장용창 / 장용호 / 장우진 / 장윤성  
 장은영 / 장준교 / 장준복 / 장준석 / 장준순 / 장지선 / 장직순 / 장진엽 / 장혜영 / 장호 / 장희철 / 전경남 / 전근열 / 전두수 / 전명수 / 전명자 / 전미영  
 전상수 / 전성일 / 전성표 / 전성환 / 전수정 / 전승민 / 전영목 / 전용현 / 전용호 / 전우석 / 전재현 / 전정옥 / 전정조 / 전지영 / 전진수 / 전창규 / 전탁일  
 전현수 / 전현숙 / 전형우 / 정경훈 / 정구영 / 정구창 / 정규범 / 정규순 / 정규하 / 정근희 / 정기승 / 정기정 / 정기현 / 정기훈 / 정남오 / 정대중 / 정동민  
 정동석 / 정동실 / 정동열 / 정두연 / 정명신 / 정문규 / 정문기 / 정미경 / 정미숙 / 정민호 / 정방근 / 정복길 / 정봉석 / 정상정 / 정서진 / 정선교 / 정성윤  
 정성환 / 정성희 / 정세훈 / 정순영 / 정순임 / 정승화 / 정애경 / 정양민 / 정양원 / 정양호 / 정양희 / 정연광 / 정연국 / 정연영 / 정연옥 / 정연호 / 정연훈  
 정영옥 / 정영채 / 정옥지 / 정옥희 / 정완식 / 정왕진 / 정오열 / 정윤희 / 정우연 / 정운규 / 정유찬 / 정윤석 / 정윤택 / 정의대 / 정의숙 / 정인수 / 정인하  
 정일구 / 정재기 / 정재두 / 정재명 / 정점래 / 정정문 / 정중권 / 정준 / 정준모 / 정지순 / 정진희 / 정창경 / 정청용 / 정태선 / 정태화 / 정한웅 / 정해근  
 정해준 / 정현숙 / 정현용 / 정혜림 / 정혜숙 / 정혜원 / 정혜인 / 정호운 / 정홍구 / 정홍숙 / 정홍락 / 정희교 / 정희자 / 정희진 / 조강래 / 조결훈 / 조경숙  
 조경제 / 조광조 / 조광순 / 조규영 / 조규태 / 조기홍 / 조길원 / 조동식 / 조두진 / 조명 / 조명순 / 조무창 / 조문준 / 조병환 / 조봉원 / 조성만 / 조성철  
 조성태 / 조수진 / 조순명 / 조연제 / 조영록 / 조영상 / 조영석 / 조영환 / 조영환 / 조완호 / 조완백 / 조원규 / 조원자 / 조원주 / 조윤진  
 조은경 / 조은숙 / 조익수 / 조익환 / 조재용 / 조재현 / 조재환 / 조정숙 / 조정환 / 조종순 / 조종용 / 조종열 / 조진선 / 조총희 / 조하연  
 조한덕 / 조한식 / 조해성 / 조현수 / 조현욱 / 조현우 / 조현주 / 조희규 / 조혜성 / 조환 / 조환명 / 조희형 / 주광진 / 주기영 / 주동준 / 주민규  
 주영천 / 주일로 / 주왕원 / 주필상 / 지승구 / 지승렬 / 지영교 / 지찬원 / 지춘수 / 지호연 / 진경년 / 진광선 / 진명주 / 진명철 / 진성호 / 진영란 / 진주현  
 차권자 / 차명도 / 차미희 / 차상훈 / 차선희 / 차연선 / 차영주 / 차중근 / 차환운 / 채규창 / 채석환 / 채영호 / 채일 / 천희길 / 천순자 / 천승락 / 천연희  
 천행연 / 천희수 / 최경란 / 최경해 / 최경희 / 최관수 / 최광식 / 최규선 / 최근배 / 최근실 / 최근호 / 최금숙 / 최기락 / 최기원 / 최기혁 / 최길수 / 최길자  
 최도선 / 최만조 / 최만중 / 최명규 / 최모석 / 최문규 / 최문호 / 최미숙 / 최미영 / 최병국 / 최병학 / 최복희 / 최상돈 / 최상범 / 최상한 / 최선정 / 최성남  
 최성달 / 최성해 / 최수도 / 최수연 / 최수영 / 최순식 / 최순자 / 최승권 / 최승순 / 최승윤 / 최신영 / 최영국 / 최영길 / 최영남 / 최영두 / 최영락 / 최영수  
 최영실 / 최영재 / 최영호 / 최옥분 / 최용준 / 최용호 / 최우용 / 최원덕 / 최원신 / 최원진 / 최유미 / 최윤 / 최윤순 / 최윤영 / 최윤용 / 최윤호 / 최윤희  
 최용현 / 최은정 / 최은희 / 최은선 / 최익규 / 최익선 / 최인수 / 최인자 / 최인태 / 최일근 / 최재근 / 최재승 / 최재은 / 최재필 / 최재혁 / 최재효 / 최점례  
 최정민 / 최정영 / 최정은 / 최정주 / 최중엽 / 최중우 / 최중욱 / 최중성 / 최중영 / 최중원 / 최중호 / 최진구 / 최진미 / 최진희 / 최창기 / 최창식 / 최춘석  
 최충현 / 최태영 / 최태현 / 최학철 / 최현아 / 최현욱 / 최홍근 / 최희자 / 추동욱 / 추병윤 / 추호석 / 탁현배 / 편재필 / 편중훈 / 표은영 / 표준상  
 하상욱 / 하영화 / 하지환 / 한경화 / 한경희 / 한관희 / 한광남 / 한군희 / 한기자 / 한기홍 / 한다예 / 한명희 / 한민규 / 한봉희 / 한상란 / 한상욱 / 한상준  
 한상철 / 한석근 / 한석봉 / 한석분 / 한성준 / 한성희 / 한승엽 / 한승호 / 한연란 / 한영민 / 한영석 / 한영엽 / 한운수 / 한윤희 / 한재광 / 한정숙 / 한종인  
 한진숙 / 한진희 / 한창근 / 한태규 / 한형욱 / 한호 / 한화영 / 한효식 / 한희영 / 함건주 / 함경숙 / 함기애 / 함동일 / 함정 / 함정화 / 함형미 / 함형이 / 함효준  
 허경숙 / 허경욱 / 허근우 / 허기영 / 허남결 / 허남태 / 허려화 / 허문희 / 허미성 / 허석수 / 허성철 / 허연수 / 허인영 / 허택만 / 허호무 / 현남주 / 현석무  
 현수 / 현연식 / 현정분 / 현정은 / 현희숙 / 호정화 / 홍권희 / 홍기영 / 홍기택 / 홍남진 / 홍대의 / 홍덕표 / 홍만표 / 홍민철 / 홍범준 / 홍보영 / 홍봉숙  
 홍석표 / 홍성기 / 홍성수 / 홍성호 / 홍세경 / 홍수정 / 홍순갑 / 홍순자 / 홍순희 / 홍영수 / 홍영숙 / 홍원기 / 홍은경 / 홍인철 / 홍재문 / 홍재철 / 홍종필  
 홍진선 / 홍중식 / 홍혜민 / 황경애 / 황교민 / 황교숙 / 황금철 / 황기순 / 황대성 / 황덕모 / 황동선 / 황두성 / 황란영 / 황명수 / 황미라 / 황민숙 / 황민하  
 황병철 / 황보성학 / 황선관 / 황선영 / 황성욱 / 황수연 / 황순석 / 황순연 / 황안일 / 황영순 / 황영진 / 황영희 / 황우식 / 황원복 / 황원선 / 황의경 / 황인국  
 황조원 / 황진규 / 황진연 / 황찬원 / 황충국 / 황태선 / 황태란

대양코퍼레이션(주) / 미래공조(주) / 바이더웨이 수유분점 / 보광토탈이엔지(주) / 비티에스경영컨설팅 / 선내과의원 / 세이프건설(주)  
 씨유 영천동부점 / 유티정보(주) / (주)경봉 / (주)굿네트웍스 / (주)성호스텐 / (주)세인 / 주식회사 세인코스 / 주식회사 엔에프씨 / (주)에이피피  
 (주)이포넷 / (주)임파크 / (주)한국푸엔코 / 창성열처리

# 입학사정관 전형,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당신을 찾습니다



한호\_ 입학처장

아주대학교는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이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 대학발전을 위한正道(正道)를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덕분이다. 이러한 방향에 맞게 오는 9월 초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존 전형들을 재정비하여 '아주ACE전형'과 '학교생활우수자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두 전형의 공통점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해 온 인재를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점이다. 2014학년도에는 이 두 전형을 통해 전체 신입학 모집인원의 23%에 해당하는 446명을 선발하는데 아주ACE전형에서 237명,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에서 209명을 선발한다.

아주대학교의 대표적 수시전형으로 자리매김한 '아주ACE전형'은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 의식과 창의 역량을 실천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여느 대학과 달리 제출서류로 교사추천서나 포트폴리오, 공인어학성적 등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이 교내활동 및 학교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1단계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성, 기초 학업능력, 학교생활 충실도 등을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며 모집정원의 3배수 내외로 선발한다. 제출서류가 적은 만큼 본인의 진로에 대한 열정과 고민을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잘 녹여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경험을 진심을 담아 작성하고 그 활동들이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꿈을 실현하는 데에 어떠한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몇몇 학생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나머지 단순 실적만 나열한다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단계 면접평가에는 해당 전공 교수님과 입학사정관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20~25분간 진행되며 발표면접과 개인면접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다. 발표면접에서는 지원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기본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 전공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개인면접에서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 목표의 명확성, 의사소통능력, 협동심, 인성 등을 확인한다. 해당 전공마다 발표면접의 주제가 다르므로 이는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ACE전형은 수능 최저기준이 없으므로 교과성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 전공 관련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해 온 학생들의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입학사정관전형인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전형의 이름 그대로 성실한 학교생활과 자기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별다른 제출서류 없이 학생부 하나만으로 일괄선발한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수시 2차에 속한 전형으로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성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비교과활동(학교생활 충실도와 기본인성 등)도 평가에 반영된다. 그리고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1단계, 수능최저기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수능최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본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하더라도 합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서제출에 앞서 수능최저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자신만의 꿈을 갖고 그 꿈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학생을 찾고 있다. 해외 봉사활동 경험, 화려한 교외 수상실적은 없더라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학생이라면 충분하다. '잘 가르치는 대학' 아주대학교는 최근 중앙일보가 실시한 '재학생 대학 만족도조사'의 강의 만족도 부문에서 2위를 기록했다. 자신의 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아주대를 선택하게 된다면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든든한 첫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Love is, above all else, the gift of oneself

## 1-1-1 캠페인

- 사랑스런 후배의 멘토가 되어 가슴 속에 자리합니다.  
1-1-1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배님이 보내주시는 장학금은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재학생 후배들에게 돌아갑니다. 십시일반 모인 정성은 매학기 '1-1-1 장학금'으로 후배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 미래의 사랑스런 아주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 선·후배간의 따뜻한 교류가 희망찬 '아주공동체'를 열어갑니다.



- ☎ 전 화 : 031-219-2107~9, 2099로 전화주시면 기부상담 및 구두약정 가능
- 🖱 인터넷 : 대학발전본부 홈페이지(<http://ajousarang.ajou.ac.kr>)에서 [온라인약정] 클릭
- ✉ 이메일 : [ajousarang@ajou.ac.kr](mailto:ajousarang@ajou.ac.kr) 로 약정의사 표시
- 📠 팩 스 : 031-219-1623으로 약정서 송부
- 📄 CMS 자동이체 :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기부참여(세부사항 전화문의)

작은 정성이 모여 만든 큰 사랑 1-1-1 캠페인으로 후배사랑이 가까워집니다. 기부금은 재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